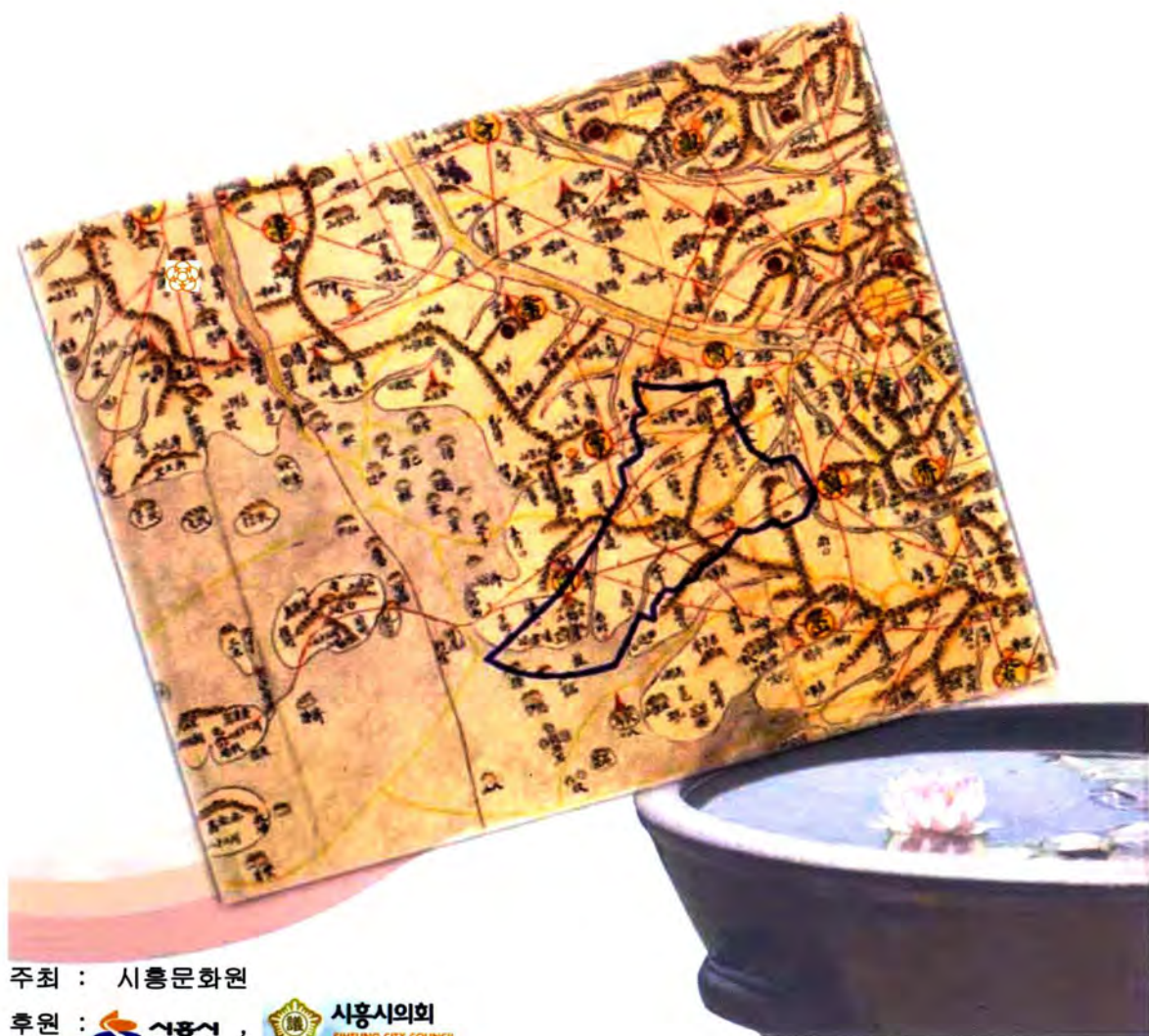


제1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 시흥의 정체성과 시흥문화원의 역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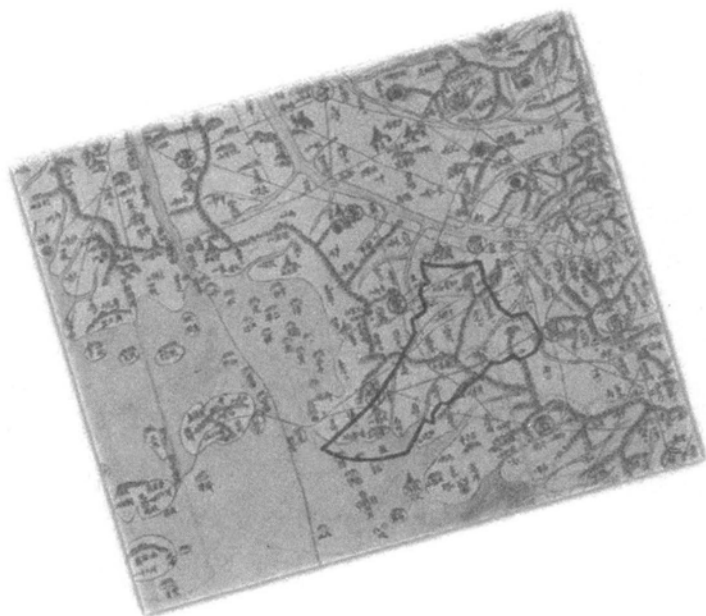
주최 : 시흥문화원

후원 :  시흥시,  시흥시의회

2013 인문학 산책

제1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 시흥의 정체성과 시흥문화원의 역할 -



일 시	2013년 10월 17일(목) 14시
장 소	시흥문화원 다목적홀
주 최	시흥문화원 (정책위원회 주관)
후 원	시흥시·시흥시의회

문화원은 어떤 일을 하여야 할까

정원철(시흥문화원 원장)

정체성(正體性)이란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모여 사는 지역 단위인, 시흥시의 정체성이란, 곧 시흥 땅과 시흥 사람들에게서 추출되는 본질적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는 자신을 잘 알아야 하듯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본질적 특성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하지만 누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니, 오랜 기간 논의와 숙의로 본질적 특성을 찾아야 하는데, 찾는 과정 그 자체가 지역에 양질의 긍정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므로 지속적 논의가 중요할 것이다. 시흥시의 정체성에 관한 지속적 논의는 시흥 문화원의 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시흥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과 더불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을 구체화 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인의 고민, 물질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복의 요인을 문화에서 찾는다 할 때, 구체적으로 문화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우리 문화원은 무거운 사명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문화 활동을 하여야 하는지, 동시에 문화가족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문화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근래 정부에서도 문화융성을 국가의 정책기조로 삼고 있으니 그 노력의 필요성은 두 말 필요 없겠다.

시흥문화원 정책위원회에서는 ‘시흥지역문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시흥의 정체성을 밝히는 막중한 논의가 몇 번의 세미나로 다 밝혀질 수는 없겠으나 일단 출발하기로 하였다. 첫 세미나의 발제는 시흥시 향토사료실의 김치성 상임위원과 안산문화원 이현우 사무국장, 그리고 시흥 예총의 최찬희 부회장이 맡아주셨다. 첫 출발을 사학자와, 문화 행정가, 예술인이 맡아 주셨으니 이후로도 많은 영역에서 활발한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사실의 진위를 비롯하여 추구하고 천착해야 할 초점과 이슈가 드러날 것이다.

시흥지역문화 세미나가 매년 개최되어 잠재하는 다양한 시각을 표면화시키는 일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 증진에 꼭 필요한 요소라 믿는다. 아주 오래도록 이 에너지들을 한 자리로 모으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문화의 달, 문화주간을 맞이하여 펼치는 인문학 산책, 시흥지역문화 세미나는 문화가족들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문화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1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개회식

국민의례, 문화비전 낭독, 문화원장 인사, 축하
사회 : 하세용 사무국장

14:00~14:10

1부 발제

14:10~15:00

1)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것

발표 : 김치성 시흥시향토사료실 상임위원

2)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발표 : 이현우 안산문화원 사무국장

3) 예술로 바라본 시흥의 정신

발표 : 최찬희 사)한국예총시흥지부 부회장, 서예가

2부 종합토론

좌장 : 정원철 시흥문화원장

15:20~16:00

토론 : 발제자 전원

목 차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것.....	05쪽
김치성 시흥시향토사료실 상임위원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16쪽
이현우 안산문화원 사무국장	
예술로 바라본 시흥의 정신.....	27쪽
최찬희 사)한국예총시흥지부 부회장	
부록.....	33쪽
시흥의 유무형문화재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것

우리 시 역사를 읽는 방법

김치성¹⁾

1. 왜 '땅'과 '사람들'인가?

시흥시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나? 삼국시대 매소홀현(買召忽縣, 우리시 북부지역), 장항구현(獐項口縣, 우리시 남부지역)으로부터 비롯되는 우리시 역사 연혁의 변천과정을 이 지면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흥시민이라면 이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²⁾ 이 글을 통해서는 조금 큰 틀에서 우리시 역사의 특성과 (그 특성에 기인하여) 어떠한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즉 우리시 역사 이해를 위한 접근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둔다.

첫째, 주2)에 제시한 우리시 연혁 일람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시흥시는 우리시의 첫 지명(地名)을 알 수 있는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더 나아가 1973년 부천군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기 이전까지 시의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이 서로 다른 역사 연혁을 거쳐 왔는데, 이러한 특성은 시흥시 역사 인식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시의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우선 짚어 두고자 한다.³⁾

둘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⁴⁾ 지자체의 영역적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은 일제강점기의 구역 설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 기준 하에 설정된 행정구역의 일차적 요건은 '공공행정 효과의 극대화'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경험적 판단에 근거하여 전통시대 지방제도의 개편·정비가 지역민들에게 "타율적(국가 혹은 중앙에 의한)" 성격이 강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전통시대 왕조의 지방체제 정비는 지방세력의 통합과 중앙집권화(판료화)의 과정이 하나의 맥락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도 이미 지방을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과 "땅"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으며, ①사람

1) 시흥시 향토사료실 상임위원

2) 이에 관해 추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주2)에 소개한 '시흥시 사이버 역사관' 홈페이지의 수록 자료를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더 자세히 탐구하고 싶을 경우 『시흥시사』(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의 정독을 권한다.

3) 우리시 연혁 일람표(시흥시 연혁을 간단히 환기하기 위해 시흥시 사이버 역사관(<http://history.siheung.go.kr>)에 정리해둔 내용을 게재한다).



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거나, 혹은 거꾸로 이를 제한하는 지형적인 조건들, ②인구와 토지, 물산(物産), 군사 등 지정학적 고려, ③이로부터 파생되는 이른 바, ‘생활권’·‘문화권’의 전통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⁵⁾

년대 (시대)	연 혁
475(고구려 장수왕 63)경	장항구현, 매소홀현
757(신라 경덕왕 16)	장구군, 소성현
고려시대	장구군 ⇒ 안산현 ⇒ 안산군, 소성현 ⇒ 경원군 ⇒ 인주 ⇒ 경원부
조선시대	안산군 ⇒ 안산현 ⇒ 안산군, 인주 ⇒ 인천군 ⇒ 인천도호부 ⇒ 인천부
1914. 03. 01	시흥군, 부천군
1973. 07. 01	부천군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
1979. 08. 10	시흥군 수암면 6개리, 군자면 7개리가 반월출장소로 편입
1980. 12. 01	소래면이 소래읍으로 승격
1983. 02. 15	시흥군 소래읍 옥길리 및 계수리 일부가 부천 및 광명으로 편입
1989. 01. 01	시흥군 소래읍, 수암면, 군자면이 시흥시로 승격(법률 제4050호)
1991. 01. 15	매화동(무지, 파림) 일부가 중립출장소로, 신관동(하중), 목감동(하상, 능곡, 광석), 안산동(화정), 거모동(장현, 장곡) 일부가 연성출장소로 각각 분소(시조례 제230호)
1991. 09. 01	중립, 연성출장소가 각각 동으로 승격(시조례 제282호)
1992. 01. 01	신관동을 신현동으로, 중립동을 파림동으로 명칭 변경(시조례 제291호)
1994. 07. 01	거모동을 군자동으로 명칭 변경(시조례 제374호)
1995. 04. 20	시흥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및 화정동 일부가 안산시에 편입(대통령령 제14629호)
1995. 11. 15	무지동을 무지내동으로 명칭 변경(시조례 제423호)
1999. 09. 27	정왕동을 정왕1동, 정왕2동으로 분동(시조례 제573호)
2002. 03. 02	정왕1동, 정왕2동을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으로 분동(시조례 제694호)
2003. 12. 23	정왕1동을 정왕본동, 정왕1동으로 분동(시조례 제764호)
2010. 09. 20	연성동을 연성동과 능곡동으로 분동(시조례 제1132호)

- 4) 국가와 지방의 권한 조정에 관한 이른 바 ‘지방분권’ 논의는 지방자치의 ‘내용’과 직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현대 지방‘행정’의 개념 속에서 살피는 것이 보다 유효할 것이며, 한 지역의 연혁을 설명하는 일차적 조건이 되는 전통적인 ‘경계(境界)’ 및 그 성격에 관한 논의와는 구분지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5)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대규모의 지방체제 개편은 전통적 향촌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외세에 의한 식민 지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어도 일국사적(一國史的) 국가체제 하에 진행되었다고 전제할 수 있는 전통시대(조선시대까지)의 지방체제 정비와는 내용적으로 맥락을 달리한다 할 수 있겠다.



셋째, 지자체 중심의 역사 인식에 방법론적으로 참고하기 위해 이른 바 ‘국가의 3요소’인 ‘영토·국민·주권’에 대해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이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제국주의의 팽창과 맞물리는 근대 국민국가(민족국가) 시기에 형성된 개념이며, 자본과 문화, 강대국의 국제적·군사적 영향력 등이 ‘선으로 그어져 있는’ 국경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오늘날에는 국가 개념에 관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지만, 여전히 3요소 중 하나가 결여된다면 하나의 국가로 존립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프레임이다.

국가가 그 나라를 구성하는 공동운명체인 ‘국민’과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영토(영해·영공 포함)’,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을 갖지 못하면 성립할 수 없듯이, 지자체도 지자체를 구성하는 ‘주민’, ‘관할구역’, 그리고 ‘지방자치권’을 갖지 못한다면 독립된 지자체로 기능할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방에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행정체계 구성에 있어 ‘주권(자치권)’이 필수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의한 ‘지방자치의 권한’이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자치권’이 없다면 지방행정체제를 구성할 수는 있어도 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른 바 ‘국가의 3요소’는 지자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준거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시사(市史)’ 편찬을 정점으로 하는 오늘날의 지방사 서술, 내지 지역사 인식의 주된 흐름이 대개 ‘이웃 지자체’와 구별되는 ‘우리 지자체’의 정체성 제고(提高)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다는 점에서 특정 지자체의 역사 인식의 기초에는 필수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땅(관할구역)’과 ‘사람(주민)’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⁶⁾

2. 이 땅과 사람들의 시작 : 선사시대

주지하듯이 ‘선사시대’는 문자 그대로 문헌기록이 없음을 뜻한다. 그런 까닭에 선사시대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드러나는 선사유적을 분석하여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단일 유적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일정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들의 비교 분석과 연구 성과 종합을 통해 문화적 변천과정이나 전파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선사시대의 문화적 양상은 역사시대에 비해 비교적 광범위한 범주에서 분석되고 있지만,⁷⁾ 일단, 우리는 우리시에서 발견된 선사유적들

6) ‘지방(사)’과 ‘지역(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나, 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되므로 따로 견해들을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허홍범이 그의 논문(『지역사 연구와 지방지 편찬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48, 2003), 108쪽의 ‘각주 1’ 참조)에서 밝힌 것처럼 논의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별도의 연구와 심화가 필요하다.

7) 선사시대 중부 서해안 일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과 그 분포양상에 대해, 문헌자료를 통한 추론이 가능한 역



「시흥 오이도 유적」 발굴 패총 분포도

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얼마나 오래된 곳이며, 아주 오래 전 사람들은 이 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계수동, 도창동, 매화동 등에서 비록 파편적이지만 구석기시대의 석기와 찻개 등이 발견된 바 있어, 우리시 지역 인류 흔적의 기원을 가늠케 하고 있으며, 조남동, 계수동, 군자동 등에서 발견된 고인돌과 거모동 등의 청동기 주거지의 존재를 통해 청동기 문화상의 일단 또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우리시 지역의 선사시대를 설명함에 있어 보다 압도적인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441호 “시흥 오이도 유적”(2002.4.1 지정)과 우리시 향토유적 제20호인 “능곡동 선사유적”(2011.11.2 지정)이다. 두 유적은 모두 신석기시대의 것으로 발굴지점별로 편차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B.P. 4,000~5,000 정도로 편년된다.⁸⁾ 즉, 이들 유적은 대략 B.C

3,000~2,000년 경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두 유적의 연대는 신석기시대 중·후기로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해당하나,⁹⁾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의 형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석기시대 인류 문화의 발전과 변화는 ‘정착과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신석기혁명”이라 불린다. 오이도 유적은 크게 6개의 패총군으로 구분될 정도로 섬 전체에 많은 패총이 분포하고 있어, 이 곳에서 어패류를 채취했던 신석기인들의 어로 영역과 그 집단의 규모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 능곡동 선사유적의 경우, 한 시기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신석기 집터 24기가 발굴되었는데, 이는 안산 신길동 유적과 더불어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발견된 신석기 주거유적 중 최대 규모에 속하는 것이다. 능곡동 유적에

사시대의 그것과 동일한 시각으로 접근·해석하는 것은 곤란한 일일 것이다. 즉, 여기에서 ‘광범위한 범주’라 함은 예를 들어 신석기시대의 경우, 강화도, 영종도 등 경기도 일대와 서해 도서 해안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 유적들과 그 문화권의 연장선상에서, 청동기시대의 경우, 광명 가학동이나 안산 선부동 등의 고인돌 및 기타 군포나 부천 등지에서 발견된 청동기 주거유적 등의 분포양상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찰되어야함을 의미한다.

8) 두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보고는 발굴보고서(『烏耳島』(서울대학교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2003(이후, 『시흥 오이도유적』(서울대학교박물관, 2013)으로 증보되었다 ; 『始興 陵谷洞遺蹟』(경기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2010)를 참고하면 된다.

9) 시흥시 지역에서 보다 이른 시기의 신석기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계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선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더 오래된 패총이 우리시 오이도 앞바다에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선사문화와 고대사회의 형성』(배기동, 『시흥시사』2 시흥의 전통시대, 2007, 19~20쪽) 참조).

대한 발굴보고서가 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유적과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차차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이도 유적(어로 구역)과 능곡동 유적(주거 구역)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산이 풍부한 해안가와 강가를 골라 정착을 시작했던 신석기인들이 선택했던 곳, 그런 입지적 조건에 부합했던 땅이 이곳이며, 어쩌면 그들을 오늘날 우리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원초적 모양새를 만든 사람들로 규정해도 되지 않을까.



소공원으로 정비되어 있는 「능곡동 선사유적」

3. 삼국시대로부터 비롯되는 우리시 역사 독법(讀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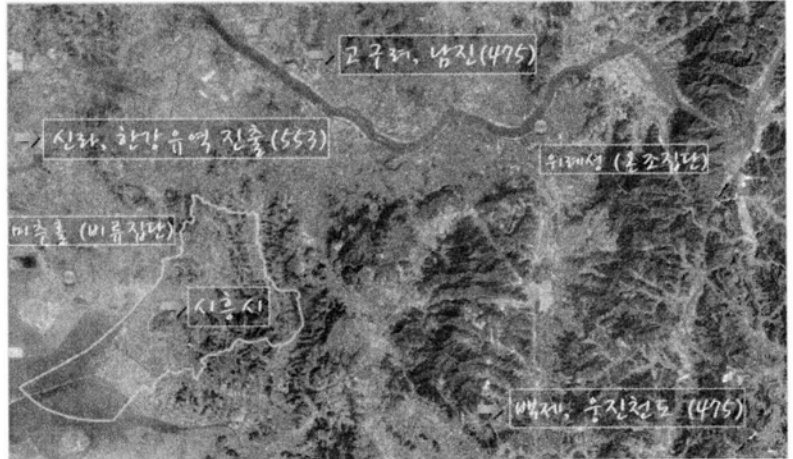
역사시대로부터는 많은 문헌적 자료들이 우리 역사 복원의 근거가 된다. 문헌적 근거가 없거나 희박할 경우, 많은 사회 현상이 ‘추정’이나 ‘가설’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 문헌 조사를 통한 역사 연구의 특징이다.¹⁰⁾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짚어두어야 할 것은 ①인류사의 발전 과정 상 계급의 발생과 더불어 신분제사회로서 즉, 사람들 사이에 이른 바 ‘귀천(貴賤)’이 존재하였고, 남아있는 전통시대 문헌자료의 거의 대부분은 지배층의 의한 지배층의 것이라는 점, ②그리고 이 글의 맥락인 땅과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전통시대의 역사는 ‘중심지(땅)’와 ‘중심인물(사람)’ 위주로 서술되어 왔다는 점,¹¹⁾ ③그런 까닭에 지배층이 아닌 사람들, 중심지가 아닌 주변부 지역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그 과정에 많은 한계가 노정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단서들을 미리 언급하는 까닭은 우리시 지역의 ‘삼국시대’가 이에 해당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강 유역과 서해안이라고 하는 뛰어난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기반으로 살았을 것이지만, 우리시 지역에서

10) 이러한 경향은 분명 사람들의 상상력에 한계를 만드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역사 연구와 서술에 있어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접근하고 분석해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바꾸어 말해, 문헌적 근거가 약하다고 해서 이러한 역사 연구의 특징을 단점으로 인식하거나, 흥미나 관심의 유발을 위해 이를 왜곡 또는 무시하는 것은 역사연구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분명 지양해야할 시각이다.

11) 특히,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왕조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중앙사(中央史)’라 부르기도 한다.

뚜렷한 역사적 특색을 지닌 삼국시대 유적이거나 유물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지역을 특정하여 서술하고 있는 역사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시 지역의 삼국시대 이해는 전체사·중앙사의 맥락 속에서 총체적인 접근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백제 ⇒ 고구려 ⇒ 신라’의 순서



위성에서 본 한강 유역과 오늘날의 시흥시 지역

로 이 땅의 지배세력이 바뀌었으며, 그 원인은 대체적으로 우리시 지역이 갖고 있었던 지정학적 중요성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삼국시대를 살필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 있는데, 바로 우리시 지역의 첫 지명(地名)이 문헌상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글의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매소홀현’과 ‘장항구현’이 그것이다. 지명이 두 개인 까닭은 우리시 중심부를 침투하고 있는 ‘갯골’을 기준으로 자연지리적 경계가 형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인문환경의 경계 역시 포개어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두 개의 지명이 등장하는 사실(史實)은 이후의 우리시 역사 이해에 필수적인 조건들을 만들어 냈다. 필자는 이것을 일단 “공유”와 “구별”로 규정하고자 한다.

4. 공유 ≥ 구별 : 고려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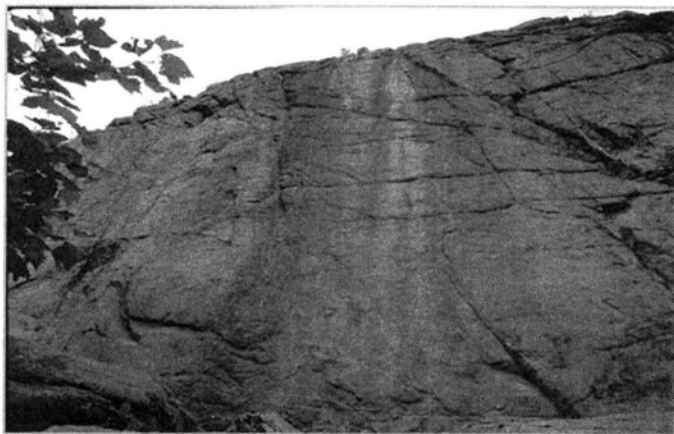
전체사·중앙사적 관점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 지역에 대한 고려시대의 역사 독법은 이전과 많이 다르다. 삼국시대와 비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양과 질이 현격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시 지역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본 장의 제목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일까?

신라 경덕왕 때, ‘소성현’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우리시 북부지역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소성현 ⇒ 경원군 ⇒ 인주 ⇒ 경원부’로 읍호가 거듭 승격되었다. 그리고 신라 경덕왕 때, ‘장구군’이 되었던 우리 남부지역은 고려시대에 들어 ‘안산현’으로 되었다가 ‘안산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정확하게는 우리시 북부지역은 소성현의 일부였

으며, 남부지역은 안산군의 일부라고 말해야 할 것인데, 아쉽지만, 읍치(邑治)를 기준으로 할 때, 소성현의 중심 영역은 오늘날의 인천광역시, 안산군의 중심 영역은 오늘날의 안산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우리시의 경우 마치 소성현과 안산군의 주변부로만 구성된 도시라는 인상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오늘날의 행정구역과 전통시대의 그것을 동일한 스펙트럼 하에 놓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소성현은 조선시대를 거치며 결국 현재의 인천광역시로 정착되고, 안산군은 현재의 안산시로 정착된 것처럼 쉽게 느껴지지만, 이 말은 엄밀하게는 부분적으로만 맞다. 오늘날의 인천광역시는 강화, 교동, 부평 등 조선시대까지는 독자적인 도호부(都護府)로 구성되어 있던 지역을 두루 아우르고 있으며, 황등천면, 전반면, 신현면 지역은 우리시 영역에 있다. 또, 오늘날의 안산시 역시 옛 안산군의 절반은 시흥시와 나뉜 상황이고, 고려시대는 물론 1906년까지 광주부에 소속되어 옛 안산군과는 계통이 달랐던 반월면, 성포면, 북방면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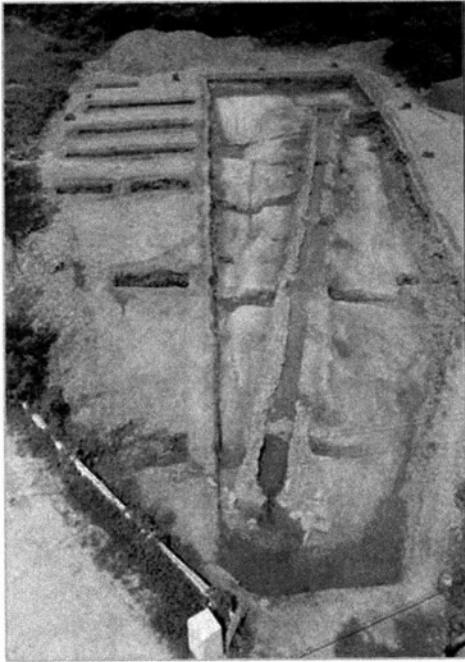
필자가 본장 제목에 마치 부등호 비슷한 기호로 표현한 것은 사실 이러한 사정과 관련이 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소성현 ⇒ 경원군 ⇒ 인주 ⇒ 경원부’의 역사, ‘장구군 ⇒ 안산현 ⇒ 안산군’의 역사는 인천광역시와 안산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시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천광역시나 안산시의 영역에 과거의 읍치였던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고, 글의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중심지’와 ‘중심인물’ 위주로 서술되어 있는 전통시대 문헌자료들의 영향으로 인천광역시나 안산시의 연혁 계보가 우리시보다 그것보다 겹보기에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옛 영역과 현재 영역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지자체들은 과거의 역사 영역을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고려시대

소성현과 안산군의 대표적인 지방 세력이자, 중앙의 문벌귀족으로 발전하였던 ‘인주 이씨’와 ‘안산 김씨’의 형성과 성장과정은 인천광역시와 안산시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시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다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영역적·역사적 공통성 하에서도, 우리시만의 독특함을 발견해내기 위한 별도의 노력, 즉 ‘구별’이 필요하기도 하다. 인접 지자체와는 다른 우리만의 이야기도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소래산 중턱에 자리잡은 보물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요컨대, 본 장의 제목은, 고려시대 우리시 영역의 역사는 “따로 ‘구별’해 내어 우리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의
발굴당시 전경

시만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보다는 소성현과 안산군의 일부로서 ‘공유’하는 역사로 읽히는 부분이 아직은 더 많다”는 뜻이다. 다행스럽고도 자랑스럽게도 우리시 관내에는 우리시의 고려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걸출한 문화유산이 있어 이러한 사정을 보완할 수 있다. 보물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2001.9.21 지정)과 사적 제 413호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1999.6.11 지정)가 그것이다.¹²⁾ 앞서 2장에서 언급한 “시흥 오이도 유적”과 함께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3점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나머지 2점에 해당한다. 두 유적은 자료적 한계로 인해 조성시기, 조성 및 운영주체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못했다. 그러나, 두 유적의 규모나 고려 문화 속의 불교의 역할, 고려청자의 위상 등을 생각할 때, 명문거족으로 자리잡았던 이 지역의 유력 지방세력들과 밀접한 관련을 지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

며, 고려시대 속에서 우리시 지역이 갖고 있는 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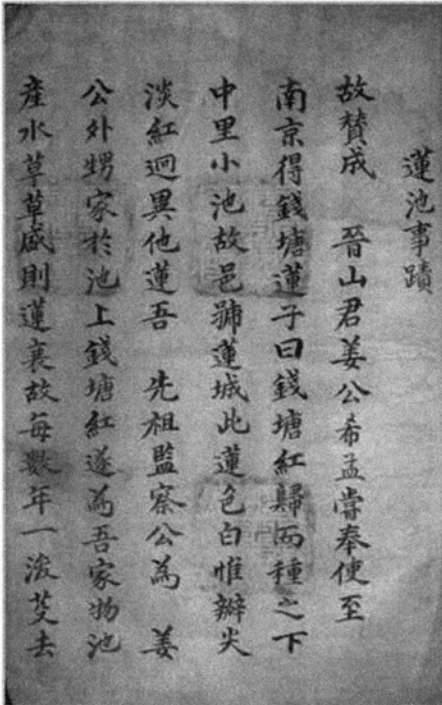
5. 공유 ≤ 구별 : 조선시대

다시 한번 확인해 두지만, 필자가 언급하고 있는 ‘공유’와 ‘구별’은 도식적인 구분이거나, 혹은 양자택일적 관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부등호(<, >)가 아닌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부등호(≤, ≥)로 표현하였다. 역사 연혁이 두 갈래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시 역사 독법에 불가결한 조건들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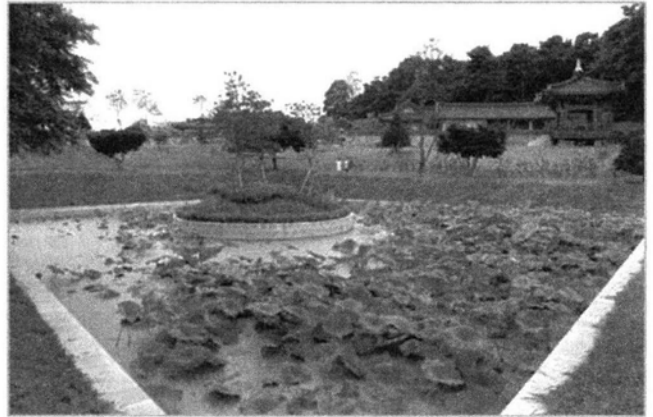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들어 우리시 지역은 읍격(邑格)의 변화는 약간 있었으나, 북부지역은 ‘인천’, 남부지역은 ‘안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읍치를 기준으로 하는 중심지의 역사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본장 제목의 부등호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일까.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향토유적 제8호인 “관곡지”(1986.3.3 지정)의 존재를

12) 이들 유적에 관해서는, 『시흥 소래산의 역사와 문화유적』(한양대학교문화재연구소·시흥시, 2004)와 『芳山大窯』(해강도자미술관·경기도 시흥시, 2001)의 두 보고서가 참고된다.



‘연성(蓮城)’의 내력이
기록되어 있는 『연지사적』



「관곡지」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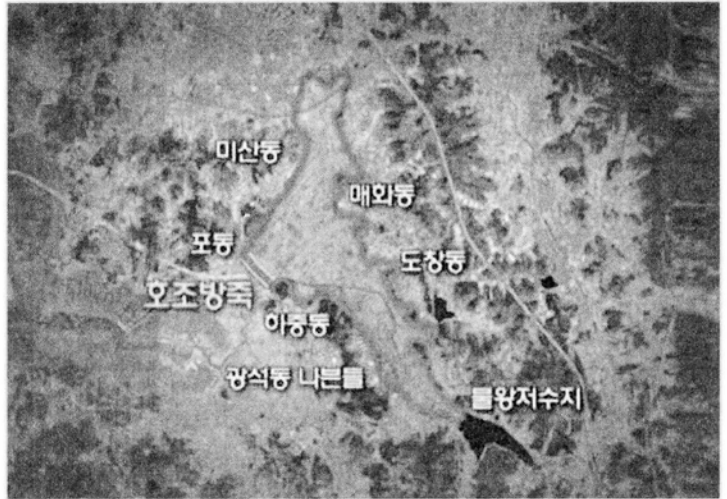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¹³⁾ 잘 알려져 있다시피 관곡지는 안동 권씨 화천군과 종종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하중동의 작은 연못이다. 관곡지는 약간 이그러진 방형으로 가로·세로 약 20m 내외의 크지 않은 규모를 갖고 있지만, 조선 세조 때 안산군에 내려진 “연성(蓮城)”이라는 별호(別號)의 기원이라는 점에서 우리시에서 관곡지가 갖는 문화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행정동 명칭인 ‘연성동’은 물론, 수도권

에서 각광받는 명소가 된 ‘연꽃테마파크’, 우리시 지역의 문화축제인 ‘연성문화제’ 등의 이름이 모두 관곡지로부터 파생되었다. 물왕동 주변으로 연을 식재료로 하는 전문 음식점들이 성업 중인가 하면, ‘○○연근참’처럼 연음식 관련 상품 제조로 이어지기도 했다. ‘연성’은 우리시가 옛 안산군의 역사를 ‘공유’함에서 비롯된 안산군의 별호이다. 그런데 왜일까? 조선시대 안산군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다른 어떠한 역사적 요소들, 사건들 보다는 관곡지는 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관곡지가 바로 “땅”이기 때문이다. 연꽃을 심은 사람은 물론,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가 하는 내력까지 『연지사적(蓮池事蹟)』과 관련 고문서들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땅”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연성문화제에서 강희맹 사신단 행렬을 거리 퍼레이드로 각색하여 그 뜻을 기리고 있기도 한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역사읽기 방법에서는 이를 ‘구별’로 풀어낼 수 있다. 관곡지는 옛 안산군의 역사로서 ‘공유’되기도 하지만, 관련 문헌과 문화유산이 모두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蓮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공유되고 있는 안산군의 전체사 중에서도 우리시의 영

13) 관련 기록은 향토사료실에서 발간한 『고서 고문서로 보는 조선시대 시흥』(시흥시, 2006, 62~85쪽)을 통해 정리된 바 있다.

역 안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렇기에 우리시의 역사적·문화적 자산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그에 걸맞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관곡지는 ‘상징성’이 강한 장소이다. 이 땅의 역사는 ‘이 땅과 이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에 들어 ‘공유’와 ‘구별’의 부등호 방향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로 주목되는 것은 호조방죽의 축조이다.¹⁴⁾ 호조방죽과 호조별은 보다 많은 땅,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귀결되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진다. 호조방죽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이 곳은 조선시대 인천부와 안산군의 자연지리적 경계가 되는 갯벌이었다. 1720년(숙종 46년)부터 1721년(경종 원년)까지 인천과 안산 사이의 바다에 독을 쌓아 만든 호조방죽은 약 150만 평의 어마어마한 새 땅을 우리시 지역에 창출해냈다. 즉, 호조방죽의 축조와 호조별의 생성은 ‘땅을 바꾼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땅이 단기간에 모두 농토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지만, 호조별이 개간되면서 우리시 지역에 상당한 인구 유입을 초래하였다. 현재 우리시 지역 토박이로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는 문중들 가운데, 호조별의 조성과정에서 입향한 가문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호조방죽과 호조별은 우리시 지역에 있어 명실상부한 ‘지역민’의 형성에 다름 아니다. 인천부와 안산군의 경계지역, 변두리였던 땅, 때문에 두 개의 양안(量案)이 따로 존재했던 땅이 현재의 우리시에 있어서는 중앙부를 구성하는 땅이 되었다. 그렇기에 호조별은 ‘공유’ 보다는 ‘구별’에 보다 가까운 이야기이다. 호조별은 고기잡이와 갯벌 채취를 주업으로 살아가던 우리시 중부지역 사람들의 삶에 토지와 농업이라는 생업 기반의 안정성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낳은 것이었다. 마을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와 더불어 인구가 증가하게 됨으로써,¹⁵⁾ 오늘날 우리시 모습의 기본적인 뼈대가



호조방죽과 호조별의 개략적인 위치와 범위

14) 호조방죽의 축조로 나타난 우리시 지역의 경관과 생업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향토사료실에서 발간한 『시흥 포동 새우개 당제』 연구서 중 필자의 글 「시흥 포동의 역사와 지리」(시흥시, 2010, 64~69쪽)를, 호조방죽 축조와 관련한 사료적 정리는 우리시 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길 위에서 만난 시흥』 단행본 중 심우일의 「호조방죽과 호조별」(시흥시평생교육원, 2012, 321~332쪽)을 참고할 수 있다.

15) 1789년 간행된 『호구총수』와 1871년의 『경기읍지』에 의하면 지금의 미산동, 매화동 등 호조별 지역이 포함되었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호조벌이 없었다면, 갯벌로 채워진 지역에 새로운 도시(오늘날의 시흥시)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호조벌로 만들어진 광활한 농토가 오늘날 우리시를 만든 밑거름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6. 마무리 말

지도를 살펴보자. 1910년대 지도에 오늘날의 시흥시 영역을 표시한 것이다. 우리시 지역은 정왕동과 죽율동 앞바다가 흰히 드러나고, 오이도와 옥구도가 완전한 섬으로 드러났던 땅이다. 월곶동과 장곡동, 방산동과 포동 사이에 넓직한 갯벌이 드러나 있던 땅이다. 게다가 더 옛날, 호조방죽 축조 이전에는 앞선 그림에서 살펴본 것



1910년대의 지세와 오늘날의 시흥시

처럼 은행동,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을 돌아, 하상동, 하중동에 이르기까지 바닷물이 닿았던 곳이다. 바다가 농토와 염전으로 바뀌었고, 염전이 또다시 산업생산기지로, 생태자원의 보고로 바뀐 역사가 우리시에 담겨 있다.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땅이 예전에는 없던 곳이다.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람들”로 숨쉬게 된 역사가 바로 우리시의 역사이다. 전통시대의 옛 역사를 “공유”하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구별”을 통해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갔던 곳이 바로 우리시 지역이다. 그 속에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은 자연경관과 생업환경의 변화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고, 적응하고 이겨내면서 오늘날의 우리가 되어 왔던 것이다.

던 지역의 동리수는 약 80년간 18개에서 37개로 106%나 증가하였다. 보다 긴 기간인 1789년부터 1914년까지 전국 평균 동리수 증가율이 61.8%에 그치는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두드러지는 결과이다(자세한 것은, 양선아, 『생산과 경제』, 『시흥 농촌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시흥시사5), 2007, 139~141쪽 참조).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이 현 우¹⁶⁾

I. 들어가는 말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지역문화의 소중함과 가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아울러 지역문화의 중심역할을 하는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역문화 창달’ 또는 ‘지역문화 발전’ ‘지역문화의 진흥’ 등 같거나 비슷한 의미의 제목을 붙여 지방문화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하며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문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필자가 문화원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문화원일을 자처하며 24년을 근무해 오면서 매년 한 두 번씩의 연수교육 때마다 수없이 들어 온 강의의 제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이 설립목적은 같다고 하여도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성이 틀리며 규모도 다르다. 각 문화원의 건물규모, 인적자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이로 인한 예산의 규모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229개 문화원장이나 사무국장이 같은 강의를 듣거나 논문을 접하고 나서 실감하는 비중이 다르기 마련이다. 어떤 문화원에서는 공허한 이론으로만 들릴 수 있고 어떤 문화원에서는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의 문화원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시골의 문화원에서는 꿈도 꾸기 힘들다는 불만도 나온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때문에 오늘 필자는 사전적 의미의 낱말풀이나 이론을 위한 이론의 문장구성이 아닌 그 동안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고자 한다.

16) 이현우(李鉉雨)

- 안산문화원 사무국장(1990 ~ 현재)
- 안산향토사연구소 전문위원(현)
- 안산시사편찬위원회 편찬위원 및 집필위원(현)
- 안산시지명위원회 지명위원(현)
- 안산시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현)
- 제16회 전국향토문화논문공모전 당선(200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1999, 2006)
- 안산시문화상 학술부문상 수상(2002)
- 국무총리상 수상(2012)



시흥시와 안산시가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위치가 거의 같고 도시의 성격도 흡사하기 때문에 문화원의 운영면에서도 동질성이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진부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경험에 의한 실감성을 공유하는 소견을 펼치고자 한다.

II.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문화원의 모습

1. 시흥과 안산의 지역문화

2001년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개최한 전국문화원 사무국장 제11차 연수회에서 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정행학부의 이성근 교수는 지역문화의 개념을 공동적인 요소로 연계된 일정한 공간의 생활양식 전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지역문화란 지역에서 향유하고 있는 문화, 즉 지역의 전통문화(유산문화), 지역민의 생활문화, 미래창조적인 예술문화 등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이 외부지역과 구분되듯이, 지역문화 역시 지역적 독자성과 개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문화는 한지역과 다른 지역을 특정짓는 관습의 덩어리라고 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생활양식의 전체를 지역문화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인접한 지역에서, 안산시와 시흥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지역적 특성이 있으며 안산에만 있고 시흥에만 있는 전통문화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면 딱 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를 들어 전통민속문화인 군자봉성황제와 안산의 잣머리성황제가 무엇이 다른가? 안산의 잣머리성황제와 화성시 우음도의 성황제는 또 무엇이 다른가. 굳이 따지어 본다면 구비 전승되는 설화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경순왕과 서희장군, 경순왕의 마지막 비, 경순왕의 마지막 비의 친정어머니, 경순왕 비의 동생 등등 설화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의 구성과 행적이 조금씩 다를 뿐 경기도당곳의 맥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농요도 구분할 수 없으며 풍물가락도 같은 웃다리풍물이다.

생활문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같은 생활문화이다. 공연예술문화 역시 출연하는 예술인들이 다른 뿐이지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배후의 성장력으로 있다는 것도 같으며,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 원주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도 같고 시화호에 인접해 있다는 점도 같다. 그래도 우리는 지역문화창달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얼마나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지역문화를 활성화 하는가. 우리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해야 개성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욕이 많은가 적은가, 지역문화를 문화적 복지 차원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어느 시가 많은가 적은가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각 시의 문화원이 어떤 사업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어떠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느냐도 다르다.

우리나라가 고도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함께 정신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문화부문의 발전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예술인들의 50% 이상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문화예술행사의 70% 이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개최되었으며, 전체도서 95%가 서울에서 출판된다는 통계도 있었다. 때문에 1970년까지만 해도 수도권에는 지방문화원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으며 설사 내준다 하더라도 그 설립요건이 무척 까다로워 수도권에서 지방문화원 허가를 낸다는 것은 엄두도 내기 힘들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지역문화의 소중함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도 극도로 높아졌다.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경쟁적으로 지방문화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에서도 각 구별로 문화원이 설립되기까지 이르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231개 시·군·구중에 229개의 문화원이 설립되었다. 또한 지난 2001년 문화관광부가 ‘지역문화의 해’로 지정하여 지역문화 중흥을 천명하면서 지역문화의 소중함과 가치성이 재발견되기 시작하였다.

2.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문화원의 갖추야 할 조건

1) 문화원장의 신념과 정치적 중립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문화원장의 확고한 신념이다. 지역문화창달의 확고한 신념을 가진 원장과 이에 협력하는 임원들이 문화원 발전의 중심이다. 무보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재산을 문화원에 헌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며 책임과 명예를 동시에 지고 가는 문화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문화원장들에게는 존경이 따르고 있게 마련이다. 다만 정당소속의 정치인이거나 정치인 출신이 배제되어야 하는 까닭은 간단하다. 필연적으로 반대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칫 정치관이 되기 쉬우며 정치적 영향을 받는 문화원치고 일시적 발전은 있을 수 있지만 결과는 낙후된 문화원으로 전락하는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8년의 재임동안 국회의원 공천신청 두 번, 시장 공천신청 두 번, 도합 네 번의 공천신청을 하는 문화원장이 있었다. 결과는 단 한 번도 공천을 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공천 경쟁자들만 늘어났다. 경쟁자였던 정치인이 자치단체장에 되면 그 보복 역시도 대단해서 그 문화원은 그 원장이 재임하던 8년 동안 내내 침체되는 암울한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그 원장 역시 시단위 행사장에서 앞줄은 커녕 맨 뒷줄로 쫓겨 나서 앉는 수모를 겪는 것을 보았다. 물론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문화원 정관에서 원장의 정치활동을 막고는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지방문화의 창달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문화원장의 신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사무국장의 고용보장

사무국장은 문화원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실무책임자이다. 전국적으로 문화원 사무국장들의 고용형태를 보면 3년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정년보장직인 경우도 있다. 일부 문화원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4년 계약직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자치단체장 측근이 자동으로 임명되고 해촉되고 있다. 사무국장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천직으로 삼아 혼신을 다해 문화원 일에 전념할 수는 없다. 꽤 여러 곳에서는 정치인의 낙하산으로 내려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무국장들도 보았다. 이들에게는 책임의식도 없고 의욕도 없으며 단체장 눈도 장 켜는 데만 전전하다가 시의원, 도의원 공천장 바라보면서 떠나고 만다. 그러한 사무국장들이 근무하는 문화원이 발전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정년이 보장되어 20년, 30년 근무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도 사실이다. 개인의 생계만을 위해 마르고 닳도록 실무책임자로 일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경륜보다는 타성에 젖어 나태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 정도 주기를 두고 순환보직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하나 사무국장들이 옮겨갈 자리가 없다. 문화원이 문화재단, 박물관, 문예회관 등과 보직이 순환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추상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사무국장이 되기 위해서는 끝없이 공부해야 되고, 각종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자신의 전공 외에도 팔방미인, 만물박사가 되어 머릿속에는 그 지역의 역사책 전부가 저장되어 있어야 하고 각종 행사의 기획전문가이어야 한다. 시대에 뒤 떨어짐 없이 젊은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대적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장과 문화원 사무국장은 묵을수록 맛이 난다’는 속담에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3) 문화원사의 건립

시민들의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사업의 전개가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공간이 확보 돼야 하는 것이 또한 필수적 요건이다. 안산시의 경우 1984년부터 문화원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가 1988년에 설립인가를 받았다. 설립요건에 해당하는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실, 도서실 등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기준은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도 시 소유의 청소년수련관 건물의 시설을 무상임대한다는 조건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필자가 사무국장으로 취임하던 1990년에는 문화원은 10제곱미터의 반지하 사무실이 전부였다. 1991년 전국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고 나서야 올림픽기념관에 70제곱미터의 사무실과 230제곱미터의 문화사랑방 시설을 갖출 수가 있었다. 그 후 2005년에 8,250제곱미터의 대지에 2,068제곱미터의 3층 건물과 102.3제곱미터의 경기지역 전통초가를 비롯



하여 3개의 부속건물을 갖춘 문화원사를 갖추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시설요건을 갖추고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 인근 시흥문화원의 경우 1996년 12월 설립인가되어 1997년 대야동 구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2년 능곡동 구·연성동 사무소에 원사를 마련하였는데, 당시 올림픽기념관에서 셋방살이를 하던 안산문화원에서는 무척이나 이를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문화원 임원들의 의욕과 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없으면 원사건립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시장과 공천싸움을 하던 문화원장을 곁에 붙여 없는 상황에서 원사건립은 꿈도 꾸기 힘들었다. 단독원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할 때마다 ‘내가 시장이 되면 어련히 문화원사 안 지어줄까봐 그러느냐’ 꿈 같은 얘기로 위안을 삼아야 했다. 그러던 중 2002년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비 2억 8천만원과 도비 2억 8천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화원장을 싫어하던 단체장은 이를 외면했고 문화원장이 바뀌어도 못 본척했다. 그러던 중 다행히 단체장이 바뀌면서 지역문화발전에 지방문화원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인식한 새로운 단체장의 도움으로 44억원을 들여 문화원에서 수집했던 향토유물을 전시하는 안산향토사박물관까지 갖춘 원사를 건립하였다.

한 때는 안산문화원보다 규모가 훨씬 큰 시흥문화원이 건립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차질이 좀 생긴 것으로 안다. 빠른 시일에 건립되어 시흥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 시키는데 기여하리라고 믿으며 이를 위해서 시흥문화원 임원들의 강한 의지와 지역 국회의원의 힘을 빌어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시흥시 당국과 시흥시 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4)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조례의 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 육성등)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동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동법 제19조(조례의 제정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에 의하여 1996년 구리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10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중 13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문화원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기금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내용과 또한 자치단체의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조례의 해석에 따라 사



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있다고는 하나 극 소수에 불과하다. 전북 익산시 2000년에, 안산시 2005년에, 군포시 2011년에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를, 안양시는 이를 보완한 안양시문화원사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2009년에 제정하였다. 안산시문화원사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위탁관리) 제2항에는 ‘시장이 문화원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안산문화원사 관리·위탁 협약서 제10조(운영요원) 제2항에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에 상응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사무국장을 포함한 문화원 직원 5명과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직원 2명 등 7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과 원사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냉난방비, 기계설비 유지비를 포함한 건물 유지비 등의 예산을 전액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원사를 신축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문화원에서 자문을 구해올 때 나는 안양문화원의 조례를 모델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이의 시행령에 자치단체의 문화원 지원·육성조례의 제정이 더해진다면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지방문화창달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조례 제정시나 개정시 사업비 외에 운영비 전액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5) 회원조직의 강화

기본적으로 독립법인의 형태인 문화원에서 회원구조는 문화원 조직의 초석이 된다. 많은 회원들이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서 문화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할 때 문화원은 그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조직으로 인식 받게 된다. 한 때 필자는 안산시 인구의 1%를 문화원 회원으로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회원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한 적이 있었다. 당시 인구 60만일 때 1%를 달성하려면 6천명의 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무리를 하면서 까지 회원 수를 늘려 1천5백여명까지 회원확보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우선 회원들의 관리를 위해 회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를 했지만 전담직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다. 문화원 이사들이 앞장서서 이사 1인당 수십명씩의 회원가입서를 받아오기도 했지만 이들중 30%정도만 회비를 내고 나머지는 유명무실한 회원들로 전락해 갔다. 우편물 한번 보내는데도 많은 예산이 소요됐고 행정력이 낭비되었다. 특히 정관개정이나 문화원장 선출시에는 대의원회의에서의 결의사항이 무효이며 회비를 내는 회원들 전체가 참석한 총회에서만 정관개정과 원장선출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후에는 과감하게 회원정리도 해야 했다. 진성회원으로 불리는 회비 잘내고 행사에 참석 잘하는 정예 회원으로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지로로 회비를 받던 방식을 변경해서 CMS제도를 도입하여 이사진들과 운영위원들의 회비가 자동이체 되게 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였다. 현재는 336명(원장1,부원장3,이

사47,운영위원85,일반회원200)으로 회원 수가 줄어들었으나 회비수입은 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어 연간 5천여만원이 된다. 2013년도 문화원 총예산 8억3백만원중 자체수입금(회비,수강료,찬조금,이월금)은 1억9천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정도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보면 문화원 회원 수를 무조건 늘리는 것 보다는 진성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Ⅲ.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역할

1. 문화학교 운영과 지역 예술인들과의 갈등해소

안산의 경우 1992년 풍물놀이 외 6개 과목으로 문화학교를 개설했는데, 처음부터 지역예술인들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서양화, 한국화, 민요, 서예, 꽃꽂이 등이 처음 개설했던 과목인데 지역예술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한 강좌는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이지 문화원에서 하면 안된다는 논리였다. 단체장까지 찾아가서 따져 묻기도 하였지만, 문화원에서 시의 보조금을 거의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물러섰다. 지역예술단체장들을 설득하여 문화원에서는 마당을 마련하여 장을 열어주고 강사는 지역예술인들만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2013년 현재는 31개 강좌에 36개 교실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문화학교 운영비로 시에서 보조받는 예산은 연간 9백만원 뿐이고 수강료를 받아 강사료를 지급하는 강사책임제로 년 1억여원의 수강료를 받아 이중 90%인 9천만원을 강사료로 지출하고 있다.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여성회관, 평생학습관, 문화예술의 전당, 각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문화원은 전통문화강좌를 우선으로 하고 일부 생활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주민센터와 중복되는 강좌는 피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 문화원은 몇 개월 과정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없이 전문성이 갖춰질 때까지 계속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사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의 수준 높은 강좌로 타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문화강좌와 차별성을 두고 있고 실제로 각 동주민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강사들 상당수가 안산문화학교 수료증을 받은 문화원 수강생 출신들이다.

지역문화예술행사에서 문화원과 지역예술인들의 갈등도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제 행사는 전통문화행사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술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과의 부딪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듣는다. 나만이 해야하고 너는 하면 안된다는 왜곡된 생각으로 어떠한 법률근거도 없이 문화원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모함도 한다는 이야기를 전국의 문화원 사무국장 모임



때 심심치 않게 듣는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문화원 사업에는 그러한 규제가 없는데도 말이다. 예를 들면 얼마전 국악협회에서 시의회 의원과 문화예술관련 공무원들을 찾아가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민요단은 국악협회 고유업무이니 못하게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지역 국악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국악협회에는 보수를 받는 상근직원 한명 없어 행정력이 없는데도 단순히 시 보조금을 받아 어떻게 운영해 보겠다는 생각이겠으나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선의의 경쟁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게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는 좋은 방책이라고 설득하는 도리 밖에 없었다.

문화원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음악협회 회원을 지휘자로 쓰고, 국악강좌를 열고 국악공연단을 운영하면서 강사는 국악협회 사람을 쓰며 조율해 나가는 것이 상부상조의 길임을 설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원에서는 마당을 열어주고 예술행위는 지역예술인들이 펼치는 상호 협력관계로 갈등을 해소해 보고자 하나 각 지역마다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이다

2. 향토사 연구는 문화원의 고유업무이다.

향토사 연구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기초적인 향토사료(자료)를 조사발굴하고 이를 연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은 문화원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하지 않고 공무원 신분의 학예직 전문위원을 두고 향토사 사업을 전담하게 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문화원과 모든 자료를 공유하면서 공동사업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문화원의 활동과 역할이 미미하거나, 불신을 받고 있거나 하여 공무원들로부터 미덥지 않은 문화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향토유적을 비롯한 문화재의 기본적인 조사사업과 향토유물의 수집과 보존 관리하는 사업, 시사편찬을 비롯하여 마을지의 편찬사업 등의 사업은 문화원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문화원에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안산문화원에서는 20여년동안 꾸준히 유물수집사업을 하여 현재 2,500여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1종 전문박물관인 안산향토사박물관을 문화원내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대부도향리지, 반월동향리지 등 마을지 편찬과 10년 주기로 두 번에 걸쳐 안산시사편찬사업을 시 위탁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개소의 향토유적을 발굴하여 향토유적 지정 건의를 하여 모두 지정되었으며 금년에는 비지정문화재 조사사업을 시 위탁사업으로 수행 중에 있다. 조사된 비지정문화재 가운데 4곳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원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향토사연구소인데 소장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은 무보수에 비상근직이다. 위탁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수당과 원고료 등



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향토사연구소 외에 지역학연구소(원)가 각 지역마다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부설단체로 두는 경우도 있고 문화원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다. 후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문화원부설이 아닌 경우는 각 대학의 AMP와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향토사연구소 보다 지명을 붙인 ○○학연구원이 좀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형태야 어찌 되었든 문화원 부설의 향토사연구소 또는 향토문화연구소, ○○학연구원 등이 지역의 역사문화연구를 주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면 그러한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문화원 표준정관에서의 문화원 사업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각 지방문화원마다의 인적구성과 시설이 각기 다르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이 저마다 다르므로 원론적인 지방문화원진흥법과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에 근거한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열거해 보고 2007년에 제정된 문화비전선언문을 통해 문화원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지방문화진흥법과 문화원 표준정관에서의 문화원 사업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에 대한 사업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사업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사업
5.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사업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사업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지원사업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007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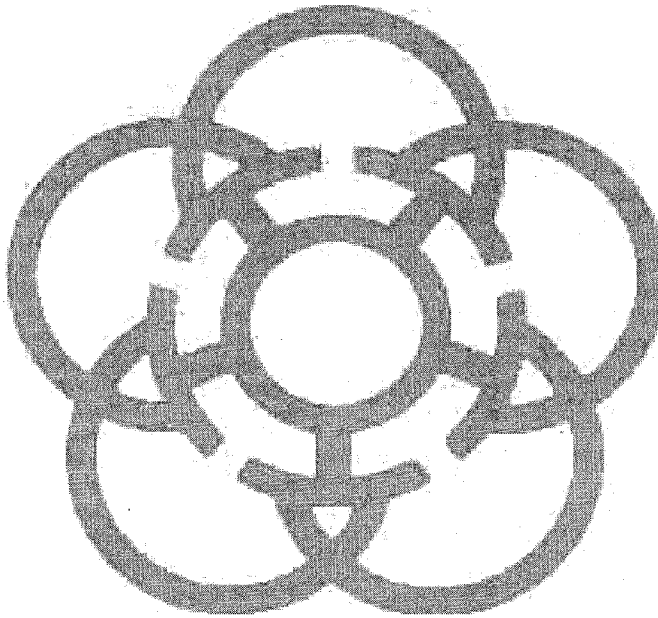
IV. 맺음말

10여년 전 우리나라의 문화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의 공민관 여러 곳을 견학하고 온 적이 있었다. 주민들이 스스럼없이 찾아와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각종 문화강좌를 비롯하여 도서관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곳이 많았다. 또한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역사관이 있었고, 각 지역의 전통문화축제를 준비하고 개최하는데 필요한 소품창고까지 갖추고 있었으며 규모가 큰 공민관은 수영장 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곳을 보았었다. 더 큰 감동을 주었던 것은 모든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공민관이 있다는 것이었다. 아마 숫자로 치면 우리나라의 시단위 자치단체에 동사무소 숫자만큼 공민관의 숫자가 많으며 공민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50%는 공무원과 같은 신분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며 나머지 50%는 자원봉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 가서든 택시를 타고 ‘그 지역의 문화원을 잡시다’라고 말해보자 과연 택시운전사가 그 지역의 문화원 위치를 알고 있는가를 보면 그 지역의 지방문화원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안산시에서 지금은 택시를 타고 ‘안산문화원 잡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안산문화원을 모르는 택시기사는 신입사원을 빼고는 거의 없을 정도이며, 문화원 위치를 알리기 위한 도로이정표도 6군데를 안산시에서 설치해주었다. 물론 문화원사가 없던 2005년 이전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문화원사를 건립하고서도 5년 이상이 지나서야 가능한 일이었다.

많은 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시흥시에서 문화원이 시흥시의 문화창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건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문화원 임원들이 함께 힘을 다한다면 머지않아 전국 제일의 시흥문화원사가 건립되고 그 시설을 바탕으로 시흥의 지역문화가 더욱 융성해지라 생각한다. (完)





예술로 바라본 시흥의 정신

인재(仁齋) 강희안(姜希顔)과 예술세계를 주목(注目)하며

최 찬 희¹⁷⁾

1. 인재 강희안을 왜 주목 하는가?

시흥은 '시흥'이란 이름을 가진 후 지난 100년 동안 행정구역의 개편을 통해 지금의 안산시, 군포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와 서울의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등의 일부가 분리됨으로서 각 지역의 크고 작은 문화적 유적과 역사적 인물, 그리고 그 정신과 이야기를 나눠가질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지명의 본가(本家)임에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변두리 도시로 그동안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근대에 들어 산업화로 인한 크고 작은 산업체의 유입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정신의 정립이 꾸준히 요구 되었다.

시흥에는 산업화의 바람으로 시화국가 산업단지 내에 6,50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과 그 외의 지역에 2,500여개의 기업을 포함하여 현재 9,000여개의 업체가 기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일자리의 창출과 세수의 확보 등의 순기능의 이면에 기업체 근로자의 잦은 전, 출입으로 시민의 30%가 바뀌는데 이동이 발생하는 상황이 몇 년 전의 일 이었다. 이에 따르는 시민의 정주의식의 결여는 당연한 일이 되었으며,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 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공동체의 분리현상 등의 사회적 문제도 야기 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시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주의식을 고취 하는데 문화예술의 정체성의 확립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 한다. 시흥은 현재 시민의 거주 권역을 살펴보면 크게 3개 권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시화국가 산업단지 변의 정왕권 과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연성권, 그리고 구시가지인 신천권이 다. 이는 권역별 시민의 생활권과, 정서의미묘한 차이로 인한 시민화합에 어려움이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비용의 발생과 시민통합의 어려움으로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식이 요구되어 왔다.

전국에는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7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227개 자치단체가 저마다의 장점을 홍보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안간 힘을 쏟고 있다. 자치단체의 인지도가 높다는 것은, 단순한 명성을

17)·시흥미술협회 고문

·사)한국예총 시흥지부 부회장



넘어 그 일원인 시민의 삶에 경제적인 영향과 함께,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도시의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교육, 문화, 교통, 환경 등을 홍보 하는 반면에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한다. 그 예로 광주, 이천, 여주시는 쌀과 기타의 농산물과 도자기 등을 홍보 한다. 이는 조선시대 때 광주에는 관요(官窯)인 사옹원(司甕院)분원(分院)이 설치되었고 현재에도 이천시와 여주시에는 전통 도자기를 만드는 요와 생활도자기 산업이 활성화 된 이유일 것이다. 화성시는 송산포도를 그리고 벼농사 지역인 평택시와 안성시는 쌀과 더불어 입장의 포도를 홍보한다.

반면에 그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문화행사, 그리고 역사적 인물을 내세워 자치단체의 정체성과 그 정신을 홍보하는 자치단체도 많다. 그 예로 시흥시와 접해있는 안산시인 신흥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문화도 시로의 표방으로 조선후기의 화가인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의 유지를 홍보하며, 행정구역 명칭으로 '단원구'뿐만 아니라 단원미술관, 단원미술제, 단원미술대전 등 전국미술공모 행사를 15번째를 맞으며, 문화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다.

가평군은 조선중기에 가평군수를 지낸 석봉(石峰) 한호(韓濩)의 유지를 기리는 휘호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고 있으며, 근래에는 문화예술 행사인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을 개최 해오고 있다. 그리고 충남 예산군은 특산물인 사과와 함께 조선 후기의 서예가, 금석학자, 고증학자, 화가, 실학자인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출생지인 점을 내세워 추사문화제와 함께 '전국 추사 김정희 추모 휘호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4회를 맞았다. 매년 10월이 되면 전국의 묵객들이 예선을 거쳐 추사고택(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옆의 추사 김정희의 묘소에 제례와 함께 잔디마당에서 옛 과거시험을 연상시키는 풍경과 함께, 휘호대회(서예·문인화)를 개최하며 농업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시서화(詩書畵)의 삼절(三絶)인 대가(大家) 추사 김정희의 유지를 받들며, 군민의 자부심과 함께 전국에 문화예술의 고장임을 자랑한다.

지금까지 많은 자치단체 중에 몇 군데의 예를 들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 한다고 말한다. 문화예술의 역할은 인간의 정서적 안정과 함께 삶을 풍요롭게 하며, 공동체의 화합과, 정체성의 확립은 물론, 길이 대물림 할 정신의 요체(要諦)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흥시에는 조선 초기 행정가, 국학자, 금석학자, 농학자, 시서화(詩書畵) 삼절(三絶)인 인재 강희안이 있다. 조선 초기라는 시대적 한계를 넘어 47년 동안의 삶을 통해 조선에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크고 작은 국가적 전란과 7년간의 임진왜란, 36년간의 일제강점기, 3년간의 6·25전쟁의 화마 속에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10여점의 주옥같은 묵적(墨跡)의 보물과, 역사에 새겨진 그의 흔적은 말로 형언 할 수 없는 귀중

한 유산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시흥의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과, 정신의 확립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인재(仁齋) 강희안(姜希顔)과 그의 예술세계를 주목(注目)”하는 이유이다.

2. 인재 강희안의 삶과 자취

강희안(1417~1461-4)은 조선 전기 시·서·화(詩·書·畵) 삼절로 유명한 문신이자 학자이다. 안견·최경과 함께 삼절이라 불렸으며, 특히 서화는 당대 제일로 손꼽히기도 했다.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경우(景遇), 호는 인재(仁齋)이다. 부친 강석덕(姜碩德)은 세종대왕과 동서 간으로, 강희안은 왕의 처조카가 된다. 부친 역시 삼절로 불렸고 좌찬성 희맹(希孟)이 동생이었으니, 강희안은 당대의 풍류와 문장으로 이름난 명문가 출신이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강희안은 시흥시에 거주했다. 그는 1441년(세종23) 식년문과 정과로 급제 예조좌랑을 거쳐 돈령부주부로 벼슬생활을 시작한다. 이후 강희안은 최항·신숙주·성삼문 등과 함께 세종년간에 배출된 대표적 인재로 이름을 떨쳤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도 정인지·신숙주·성삼문 등 8학사 중 한사람으로 참여, ‘훈민정음해례본’의 해례를 정인지 등과 같이 집필했다.(예의 해례 정인지 서문 등 3부분 33장으로 되어 있는 ‘훈민정음해례본’의 해례본 중 예의는 세종이 직접 지었음).

강희안은 정음(正音) 28자에 대한 해석을 정인지 등과 함께 덧붙였으며, 신숙주·최항·박팽년 등과 함께 운회(韻會)를 언문으로 번역하는 일도 했다. 또 문장이 뛰어나서 ‘용비어천가’에 주석을 붙이거나 ‘동국정운(東國正韻)’ 편찬에도 관여를 했다. 집현전 직제학 때는 수양대군·양성지·정척 등과 조선8도 및 서울지도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

1462년 사은부사(謝恩副使)로 연경에 다녀와 중추원부사 그리고 인수부윤까지 올랐다. 시련은 세조 등극 후에 닥쳤는데, 단종복위 운동에 사육신과 뜻을 같이하다 발각되어 심한 국문을 당한 것이다. 하지만, 친구 성삼문의 도움으로 화를 면하고, 또 한번의 화는 세조의 도움으로 면하였다가 48세의 아까운 나이에 타계했다.

행장에는 강희안이 “천성이 침착하고 바르며 고상하고 담담했으며, 또 너그럽고 공평하며 편안하고 낙천적”인 성품으로 나타난다.

말이 적고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고 고요한 것을 사랑했다거나 청렴 소박하여 출세에 연연해하지 않았다는 세평도 있다. 더러 게으르다는 말이 보이는데 둔중한 성품에도 재능이 뛰어난 덕에 편안한 삶을 누렸다고 한다.

저서로는 ‘양화소록(養花小錄)’ 전해지고 있다.



<고사관수도>

꽃과 풍류와 예술의 넘나듦과 경계

강희안은 시 그림 글씨에 두루 뛰어난 삼절 이었다. 시는 당의 위용물·유종원과 같고, 글씨는 진의 왕희지와 원의 조맹부, 그리고 그림은 송의 유용·곽희에 비견되었다니 생전의 명성의

집작할 만하다. 특히 글씨가 뛰어나서 세종 때와 세조 때 두 번이나 중요한 글씨를 썼다고 한다. 하지만 강희안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림이다. ‘고사관수도’ 외에도 그림이 그만큼 높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본래 그는 산수·인물·화훼·목죽·목매·목란·초충 등 다양한 그림을 즐겼지만, 소경산수가 배경을 이루는 그림으로,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고사관수도’가 그 예라 하겠다.

고결한 선비가 물을 바라보는 ‘고사관수도’는 철리가 담긴 그림이다. 하지만 물을 관(觀)하는 선비의 모습이 연상시키는 어떤 경지가 아니라, 그냥 ‘둔하고 어리석은 듯 물러나 고요하게 지내는 하루’의 그림이라도 좋다. 그런데 어떻게 봐도 하나의 경계를 환기하니, 고요히 물을 바라보고 있는 고사의 모습에서 도의 경지 같은 게 배어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깎지 깎지 두 팔을 꺾고 엮드린 바위도 물이나 고사 뒤의 굵직한 나무 등치 또한 예사롭지 않아서 이 그림은 한(閑)과 노(老)의 한 경계로도 보인다. 어떻게 해석을 해도 독특한 미학과 세계를 지니는데, 표현은 또 상당히 현대적인 미감을 보여주니 이래저래 뛰어난 그림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강희안의 경지를 보여주는 게 김안로의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에 나오는 글이다.

강희안은 작은 경치를 장난삼아 그리기를 즐겼고, 벌레·초목·인물 등도 그렸는데 붓놀림은 자못 성긴 듯 거친 듯했지만 저절로 생기가 났다. 애써 장식하고 화려한 자태를 내는 점에는 전문화원에 못 미쳤지만, 시 짓는 늙은이답게 여운을 남기는 점은 진정화원 화가들의 경계 바깥에 있었다.

강희안은 꽃 기르기에다 남다른 식견과 취향이 있었다. 그가 남긴 ‘양화소록’은 우리나라 최



<고사도교도>

초의 전문원에서 로 평가된다. 이 책에는 손수 기르며 알게 된 노송·만년송·오반죽·국화·매화·등 17종의 꽃과 나무에 개해 기술하고, 꽃을 분에 심는 법, 꽃을 기를 때 주의할 점 등에 대하여 설명을 붙여 놓았다. 그에게는 꽃나무 기르기도 사람의 심지를 굳게 하고 덕성을 기르는 일이었던 것이다. 하여 소나무에서는 굳은 의지를, 국화에서는 은일을, 매화에서는 높은 품격을, 난초에서는 풍격과 운치를, 창포에서는 고고한 절개를, 괴석에서는 뛰어난 덕을 본받고자 한다.

<절매삽병>

어느 날 강희안은 한 손님에게서 질문을 받는다. 꽃 기르는 기술은 인정 하지만, 그것이 눈을 즐겁게 할 뿐 결국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미혹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비록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의 미물도 각각 이치를 탐구해 근원으로 들어가면 그 지식이 두루 미치고 마음은 모든 것을 꿰뚫게 되니, 나의 마음은 사물과 분리되지 않고 만물의 겉모습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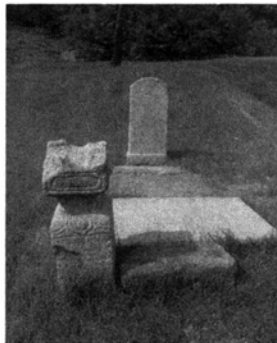
이런 생각은 연꽃의 설명 말미에 덧붙인 글에서도 확인된다.

사람이 한세상 태어나 명예와 이득에 골몰해서 분주히 힘쓰다 지쳤어도 늙어 죽도록 그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함인가? 비록 벼슬을 떠나 속세의 때를 벗어버리고 아주 자연 속에서 지낼 수는 없다고 해도, 공무를 마친 겨울에나마 맑은 바람 밝은 달 아래 그윽한 연꽃향 속에서……웃기를 열어 오가면서 시를 읊고 배회할 것이니, 몸은 비록 명리의 굴레에 매였어도 정신만은 죽히 물질의 바깥에 노닐어 마음의 회포를 펼 수 있으리라.

이 글로 짐작하건대, 강희안은 상당한 풍류와 격조로 생을 느긋이 소요한 고수이다. 그래서 ‘고사관수도’의 ‘고사’가 바로 강희안 자신 같다는 설명이 꽤 그럴듯하다. 아무튼 명리나 출세에 연연해하지 않고 시와 그림과 글씨와 꽃과 더불어 ‘물질의 바깥’에 노니는 것, 그것이 강희안의 진정한 낙이요 경계였을 법하다. 그런데 “웃기를 열어 오가면서” 읊은 시는 전해지는 게 많지 않아 아쉽다. 다만 양주 누원에서 지었다는 아래의 시로 만년에 강희안이 느끼고 읊은 소회를窺어볼 뿐이다.

흔한 산 어디엔들 오두막 못 지으랴
청산과 마주앉아 한숨 길게 뿜어보네
벼슬살이 십 년에 다 늙었으니
백발로 귀거래를 읊지 말라

아늑하고 한적한 유택



시흥시 하상동 산2번지의 강희안 집안 묘역에는 몇 대가 모여 있다. 진주 강씨의 세가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 주는 묘역이지만 참 아늑하다. 답사 날은 마침 만추의 별이 좋을 때라 잘 다듬어진 잔디와 묘를 둘러싼 나무까지 묘역 전체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평화로운 휴식에 잠시 기대어 우리도 안온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강희안의 무덤은 그 대열에 없고 한 귀퉁이에 외파로 있었다. 본래 파주 장단에 있던 묘를 1987년에 이곳으로 이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묘역 바깥 한쪽에 치우쳐 있는 강희안의 무덤은 좀 쓸쓸해 보인다. 제사도 집안 시제 때만 같이 모실 뿐이라고 한다(강희맹 등은 별도의 제를 지냄).

하지만 ‘물질의 바깥’에 서 기꺼이 노닐 줄 아는 강희안에게는 오히려 중심을 벗어난 한적한 유택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 비각 옆에는 한글 창제에 기여한 공을 새로 새긴 돌이 우뚝 서 있다. 그런데 한글로 커다랗게 새긴 ‘강희안 어르신님’보다 내게는 ‘고사관수도’의 강희안이 더 크게 느껴진다. 실제로 ‘고사관수도’는 손바닥 크기를 조금 넘는 자그마한 조각그림. 그런데 한국미술사에 남는 큰 그림이 되었으니,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재창조할 한국미술을 원류가 아닐까. 정기 혼을 만나고 오는 오늘도 웃음을 다시 여민다.¹⁸⁾

3. 시흥의 문화예술의 정신과 발전 방향

시흥의 문화예술의 정체성과 정신의 계승을 위해서는 우리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적 합의는 물론, 행정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단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의 참여, 그리고 각종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 강조한대로 나는 시흥의 문화예술의 정신에 “인재(仁齋) 강희안(姜希顔)을 주목(注目)”하였으며 그에 따르는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提言)한다.

1) 문화예술 관련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술대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그 결과물을 유인물로 제작하여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각종 관내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배포한다.

2) 축제, 문화제, 전시회, 음악회, 공연, 출판물의 발간 시 관련 자료를 게재하고 부제 등의 소재로 삼음은 물론, 홍보의 상승효과로 삼아야 한다.

3) 휘호대회, 미술공모전, 사진공모전, 문학작품 공모전 등을 개최를 통해 그 유지를 기리며 그 예술적 정신을 함양한다.

4) 각종행사시 작품의 영인본을 제작하여 전시함으로서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작품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데 기여 하여야 한다.

5) 행정기관에서는 인재 강희안의 추모일의 제정, 기념관의 건립 및 작품의 상설 전시, 신도로 개설 도로명 제정, 관내학교 순회교육과 관련행사 개최 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18)정수자·시인·문학박사, 출처:경기문화연대



부록

시흥의 유무형문화재

◀ 시흥의 유형문화재

1.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

- ◎ 지정번호 : 보물 제1324호
- ◎ 지정연월일 : 2001년 9월 21일
- ◎ 소재지 : 시흥시 대야동 산140-3
- ◎ 시대 : 고려시대

시흥 소래산 마애보살입상(始興 蘇萊山 磨崖菩薩立像)은 소래산 중턱에 위치한 병풍바위(또는 장군바위) 암벽에 선각(線刻)되어 있다. 지금은 암벽이 풍화가 심하여 그 형상을 뚜렷하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멸이 심하다. 머리에는 연화문(蓮花紋)의 화사한 보관(寶冠)을 쓰고 있는데 그 모습이 특이하다. 이 보관은 위가 좁은 원통형으로 안에 당초문(唐草紋)이 장식되어 있다. 원통형의 관을 쓴 보살은 고려시대에 와서 많이 나타나는 형식인데, 그것을 당초문으로 장식한 예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얼굴은 둥근 형상에 눈, 코, 입이 부리부리할 정도로 큼직하게 표현되어 있고, 양쪽 귀는 유난히 길게 늘어져 있으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둘러 있어 자못 근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얼굴에 표현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양쪽 어깨에 걸친 천의(天衣)는 동체(胴體)를 휘감았는데 가슴 밑에는 결대(結帶)가 있고, 그 밑으로는 큼직한 활과 같이 굽은 형상을 그리면서 발목까지 유려(流麗)하게 흘러내렸다.

한편 수인(手印)은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내장(內掌)하였으며, 왼손은 오른 팔꿈치 부근에서 상장(上掌)하였다. 발은 연화대좌 위에 양쪽으로 벌린 자세를 취하였는데, 발가락의 표현이 매우 섬세하다. 이 마애상의 규모는 높이 14m, 보관 높이 1.8m, 발길이 1.24m, 발톱길이 15cm, 귀 1.27m, 눈크기 50cm, 입크기 43cm, 머리높이 3.5m, 어깨너비 3.75m의 거불(巨佛)로 우리 나라 석불조각에 있어서 최대에 속한다. 얇은 선각임에도 불구하고, 기법이 우수하고 회화적인 표현이 뛰어난 세련된 작품이다.

1988년 시흥군지편찬위원회의 주관으로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여 탁본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1일~7월 31일까지 진행된 탁본작업에는 연 인원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탁본은 같은 해 9월 14일에 제24회 서울올림픽 성화가 통과되는 신천동 구 신라예식장 건물 벽면에 전시하여 내외에 널리 소개되었으며, 2009년 10월 시흥 20주년을 기념하여 시청 로비에 전시된 바 있다. 탁본은 현재 시흥시 향토사료실에 보관 중이다.

2.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

- ◎ 지정번호 : 사적 제413호
- ◎ 지정연월일 : 1999년 6월 11일
- ◎ 소재지 : 시흥시 방산동 370-3외
- ◎ 시대 : 통일신라시대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始興 芳山洞 靑瓷와 白瓷 窯址)는 수십 년 전부터 동네에서만 구전으로 알려져 왔으나, 1991년 1월 신현3통장인 안병권씨와 김재원 교사가 시흥시 문화공보실에 신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고, 본격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같은 해 6월 국립중앙박물관과 경기도에서 이 지역에 대한 실사를 하였고 이 때의 조사로 인하여 이 지역에 고려초기 청자요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시흥시에서는 경기도와 함께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해강도자미술관에 발굴조사를 의뢰하였으며, 1997년 1차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어 2차 발굴조사가 1998년에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요업활동의 시기는 대략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노출된 가마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아궁이에서 최초의 1차가마는 굴뚝부까지의 총 길이가 39.1m, 2차가마는 36.5m, 3차가마는 35.8m로 조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길이는 현재 남아있는 3차가마의 아궁이 끝에서 측정한 것이므로 3차가마의 길이만이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아궁이는 길이가 약 3m, 폭이 약 1.3m 가량 되며, 가마벽과 마찬가지로 벽돌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출토 유물은 청자와 백자, 토기 그리고 각종 요 도구류가 있으며, 청자와 백자의 종류로는 발(대접), 완, 접시, 화형접시, 잔, 팡구병, 유병, 주자, 호, 합, 벼루, 제기, 장고, 잔탁 등이 있다. 출토된 유물의 비율을 보면 청자가 백자에 비하여 약 95대 5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마의 특징은 첫째, 중국 요지의 축조방식인 벽돌로 축조되어 중국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으로 남한지역에서 발견된 가마 중에서 가장 양호한 벽돌가마로 평가된다. 둘째, 요업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통일신라의 전통이 강한 도기질의 요업체계가 어느날 갑자기 자기를 생산하는 요업체계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확인됨으로서 한국의 청자와 백자 발생의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기 시흥시 일대를 세력 하에 두었던 호족이나 세력가에 의해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시흥 역사의 한 부분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3. 시흥 오이도 유적

- ◎ 지정번호 : 사적 제441호
- ◎ 지정연월일 : 2002년 4월 1일
- ◎ 소재지 : 시흥시 정왕동 914 외
- ◎ 시대 : 신석기시대~통일신라시대

오이도(烏耳島)는 섬 전체가 패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로 패총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 패총들은 대체로 만(灣)이 형성된 포구 주위에서 확인되었다. 오이도 패총은 크게 북부지역 패총군, 남서부지역 패총군, 남부지역 패총군으로 구분된다.

남부지역 패총군(신포동 A패총·신포동 B패총)에 대한 조사는 1988년과 1999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 곳에서는 야외노지 3기를 비롯하여 많은 양의 빗살무늬토기 및 석기, 골각기가 출토되었다. 신포동 패총 출토 토기류는 주변 지역 출토 토기류의 문양모티프 변천을 고려해 볼 때 신포동 A패총은 신석기 중기 후반에, 신포동 B패총은 신석기 후기의 1기인 시도기(矢島期)에 속하며 절대연대는 B.C 3,500~ B.C 1,500년 사이에 해당된다.

가운데살막 패총은 오이도 남서부지역 패총군으로 모두 3개의 패총이 확인되었고, 출토 유물로는 빗살무늬토기편·석기류 등 1,000여 점과 수혈주거지 3기, 야외노지 3기 등이 확인되어 우리 나라 신석기 문화연구에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었는데 그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석기시대 전기적(前期的) 요소를 보이는 구분계 빗살무늬토기 중심의 토기들이 확인됨에 따라 서해도서지방의 신석기문화편년의 새로운 자료가 제시되었고, 문양모티프와 태토상으로 볼 때 한강유역의 중부내륙지방 유적들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과의 문화적 관련상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었다. 둘째, 출토된 토기들 중 중국 산둥지방 신석기문화인 용산문화(龍山文化)의 흑도(黑陶)와 그 제작방식이 유사한 토기편 1점을 비롯해 중국의 황해연안지방 신석기 유적 출토품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동아시아의 선사문화 비교 연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패총의 층위적 양상뿐만 아니라 패총 내 각각의 패각더미가 확인됨에 따라 당시의 조개채취집단의 생계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확보되었다.



4. 강희맹 선생 묘 및 신도비

- ◎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87호
- ◎ 지정연월일 : 1985년 9월 20일
- ◎ 소재지 : 시흥시 하상동 산2
- ◎ 시대 : 묘 - 성종 14년(1483), 신도비 - 성종 19년(1488)

강희맹(姜希孟, 1424~1483) 선생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농학자로 자는 경순(景醇), 호는 사숙재(私淑齋)·국오(菊塢)·만송강(萬松岡)·운송거사(雲松居士)·무위자(無爲子)이며,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세종 29년(1447)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좌찬성(左贊成)등을 역임했다. 저서에 『사숙재집(私淑齋集)』·『촌담해이(村談解頤)』·『금양잡록(衿陽雜錄)』·『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 등이 있고, 시호는 문량(文良)이다.

묘역은 봉분을 중심으로 가운데 묘비가 있고, 그 앞에 상석(床石)과 향로석(香爐石)이 있으며, 한 단 아래 좌우에 문신석인(文臣石人) 한 쌍이 서 있다. 상석 바로 앞에 놓이는 장명등(長明燈)도 없고 망주석(望柱石)도 없다. 신도비는 묘역에서 동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2단의 기단석 위에 비신을 세웠다. 기단석 사방에는 연판문(蓮瓣文)을 새겼고, 이수(螭首)의 앞면과 뒷면에는 각각 한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갖고 노는 단룡농주(單龍弄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조각해 놓았다. 신도비는 성종 19년(1488)에 건립되었으며, 그 후 500년이 지난 1988년에 비각(碑閣)이 세워졌다. 신도비의 규모는 비신의 높이 1.95m, 폭 80cm, 두께 20cm로 대제학 서거정(徐居正)이 비명을 짓고, 글씨는 홍문관 박사(弘文館 博士) 박증영(朴增榮)이 썼으며 아울러 전자(篆字)를 하였다. 묘역 주변에는 선생의 양부(養父)인 강순덕(姜順德, 1398~1459 이숙번의 사위, 사헌부 감찰) 묘를 비롯하여, 선생의 형인 강희안(姜希顔, 1418~1464 인수부윤) 묘, 선생의 장남 강귀손(姜龜孫, 1450~1505, 우의정) 묘, 손 강태수(姜台壽, 1479~1526 순천부사) 묘, 증손 강복(姜復, 1508~1529, 충좌위 부사용) 묘, 고손 강극성(姜克誠, 1526~1576 장단부사) 묘 등이 있다.

묘역 입구에는 선생의 재사(齋舍)인 연성재(蓮城齋), 1965년 건립)가 있고, 묘역 앞에는 하지골(荷池谷, 연꽃 연못의 뜻)이란 마을이 있었다가 연성1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에 폐동된 뒤 1999년에 대단위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자 하지골의 뜻을 지닌 연꽃마을로 명명되었다.



5. 조남리 지석묘

- ◎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103호
- ◎ 지정연월일 : 1988년 3월 21일
- ◎ 소재지 : 시흥시 조남동 480-8외
- ◎ 시대 : 청동기시대

조남리 지석묘(鳥南里 支石墓)는 우리 나라 선사시대인 청동기시대(靑銅期時代)에 살았던 사람들의 무덤이다. 이 지석묘는 조남동 소릉피(小陵山) 서남쪽 안골에 있다. 덮개돌(蓋石)은 섬록편마암(閃綠片麻岩)의 석재(石材)를 이용하였으며, 그 규모는 길이 4.2m, 넓이 3m, 두께 70cm에 이른다. 덮개돌의 윗면에는 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편마암 계통의 암질을 가지고 지석묘를 만든 다른 경우처럼 암질이 생성될 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덮개돌이 놓여져 있는 긴 방향이 동서쪽이다. 덮개돌의 전체적인 모습은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손질을 많이 하여 판자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두터운 곳이 있으며, 가운데 쪽에는 깨진 흔적이 남아 있다. 덮개돌의 아래에서 3개의 받돌[支石]이 확인되었다. 남쪽과 북쪽의 것은 조장편암질(曹長片岩質)의 석재를 이용하였는데 그 크기는 각각 2.33m×62cm×90cm와 2.46m×48cm×92cm이며, 단면이 사다리꼴에 가까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동쪽의 것은 크기나 재질 등으로 보아 이 지석묘의 원 구조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크기는 84cm×24cm×82cm이고 휘록암질(輝綠岩質)의 석재를 이용하였다. 지석묘에서는 어떠한 하부구조나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변지역에 대한 트렌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유물이나 유적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석묘가 분포된 인근의 광명시 가학동·철산동과 의왕시 내손동·이동·삼동, 안산시 양상동·선부동, 군포시 산본동·부곡동, 안양시 평촌동 등 주변지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수백년간 지속되었던 청동기 시대의 문화상 전반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흥시에서 1995년에 진입로를 마련하였고, 1999년에는 지석묘 자체의 성격 규명과 청동기시대의 문화층을 확인하기 위해 한양대 박물관에 의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주변을 정리하였으며, 2007년 7월 지반 침하로 인하여 훼손되었으나, 2008년 보수, 보존·강화 처리하여 원형을 되찾았다.



6. 청주한씨 문익공파 묘역

- ◎ 지정번호 : 경기도 기념물 제163호
- ◎ 지정연월일 : 1997년 5월 16일
- ◎ 소재지 : 시흥시 거모동 산62-4
- ◎ 시대 : 묘 - 인조 5년(1627), 신도비 - 인조 7년(1629)

한준겸(韓浚謙, 1557~1627) 선생은 조선 중기에 호조판서를 거쳐 인조의 장인으로 서평 부원군에 봉해졌다. 이 묘역은 한준겸의 묘를 중심으로, 그의 아들 한회일(韓會一, 1589~1642 한성좌윤) 묘와 우측에 손자 한이성(韓以成, 1602~1634) 묘, 그리고 바로 앞쪽에 증손인 한두상(韓斗相, 1627~1687 돈령부 판관) 묘가 함께 조성된 4대에 걸친 묘역이다. 한준겸의 시호가 문익(文翼)이므로 그의 후손들을 문익공파라고 칭한다.

한준겸 묘는 회산부 부인 황씨와 합장이며 석물은 묘표·장명등·상석·향로석·혼유석 각 1기, 문인석, 망주석, 동자석 각 1쌍이 있다. 묘표는 월두형(月頭形)의 비신(碑身)과 기대(基臺)로 이루어졌고 인조 6년(1628)에 건립되었다. 한회일 묘는 정부인 전주 이씨와 합장이며, 석물은 묘표·상석·향로석 각 1기와 문인석 1쌍이 있다. 인조 23년(1645)에 세운 묘표의 비문은 신익성이 짓고 글씨는 오준이 썼다. 한이성 묘는 유인(孺人) 죽산 안씨와 합장이며, 석물은 묘표·상석·향로석 각 1기, 동자석·망주석 각 1쌍이 있다. 문인석을 사용하지 않고 거대한 동자석을 사용한 것은 공이 벼슬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묘표는 숙종 27년(1701)에 세운 것으로 비문의 글씨는 한중노가 썼다. 한두상 묘는 숙인(淑人) 양주 조씨와 합장이며, 석물은 묘표·상석·향로석 각 1기, 문인석·망주석 각 1쌍이 있다. 묘표의 비문은 이봉휘가 짓고 글씨는 한중노가 썼다.

한준겸의 신도비는 인조 7년(1629)에 세운 것인데, 총높이 3.35m로 장대한 귀부에 푸른 빛이 감도는 대리석 비신과 생동감이 넘치는 이수(水手)의 조각, 안정감 있는 비례감각 등 조선 전기의 양식에 따라 조성한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신도비는 묘역의 이장 이후 효종 3년(1652)에 효종이 내탕금을 내어 신도비를 중건하고 그 전말을 비문의 끝부분에 새겨 놓았는데 이정구가 짓고 글씨는 오준이 썼으며, 전자(篆字)는 김상용이 하였다. 이 신도비는 한준겸의 묘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여 m 떨어져 있었으나 영동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해 1994년에 현 위치로 옮겨져 왔으며 이때 비각을 세웠다.



7. 김치인 선생 묘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호
- ◎ 지정연월일 : 1986년 3월 3일
- ◎ 소재지 : 시흥시 안현동 360-6
- ◎ 시대 : 묘 및 묘갈 - 정조 14년(1790)

김치인(金致仁, 1715~1790) 선생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공서(公恕), 호는 고정(古亭),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영의정을 지냈던 김재로(金在魯, 1682~1759)의 아들로 영조 24년(1748) 춘당대시(春塘臺試) 갑과(甲科)에 장원하여 예문관 전직, 좌승지를 거쳐 1762년 이조판서에 올랐으며 1766년 영의정을 지냈다. 당파를 조성했다 하여 영조 48년(1772) 직산현(稷山縣)에 유배되었다가 반년만에 풀려나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로 기용되었으며,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고부겸승습주청사(告訃兼承襲奏請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1785년(정조 9)에는 『대전통편(大典通編)』 편찬을 주관하였으며, 편저로는 『명의록(明義錄)』과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記)』가 있다. 시호는 헌숙(憲肅)이다.

묘는 안현동 길마재 마을에 있는데, 정경부인(貞敬夫人) 완산 이씨(完山李氏)·달성 서씨(達城徐氏)·광주 이씨(廣州李氏)의 세 부인과의 합장이다. 첫 부인 완산 이씨는 묘 오른쪽에, 둘째 부인 달성 서씨와 광주 이씨는 그의 묘 왼쪽에 각각 합장되었다. 묘역에는 호석(護石)을 두른 봉분을 중심으로 왼쪽에 묘갈이 있고, 한 단 중앙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자리잡고 있으며, 좌우에 망주석과 석양(石羊) 한 쌍이 서 있다. 묘 왼쪽에 있는 묘갈은 정조 14년(1790) 5월 20일에 세운 것으로 비신은 높이가 1.61m, 폭 68cm, 두께 37cm이며 비문은 조돈(趙墩, 1716~1790 이조판서)이 짓고 아울러 글씨를 썼으며, 전면 글씨는 그의 형 김치일(金致一, 장락원 정)의 아들 김중순(金鍾純, 1750~1802 부정자)이 썼다. 또 지문(誌文)은 종형(從兄) 김치만(金致萬)의 아들 김중수(金鍾秀, 1728~1799 좌의정)가 썼다.

신도비는 묘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묘역 내에 있던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 문신석인석(文臣石人石), 장명등(長名燈), 하마비(下馬碑) 등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반출해 갔다고 전해진다. 재실(99칸 규모)과 연못은 가문의 쇠퇴에 따른 관리 소홀로 그 흔적조차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8. 장유 선생 묘 및 신도비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호
- ◎ 지정연월일 : 1986년 3월 3일
- ◎ 소재지 : 시흥시 조남동 산1-5
- ◎ 시대 : 묘 - 인조 16년(1638), 신도비 - 숙종 2년(1676)

장유(張維, 1587~1638)선생은 조선시대 문신, 문장가로, 자는 지국(持國), 호는 계곡(谿谷)·묵소(默所)이며,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자결한 김상용(金尙容, 1561~1637 우의정)의 딸을 아내로 맞아 낳은 딸이 봉림대군(鳳林大君, 효종)과 혼인하여 인선왕후(仁宣王后)가 되어 신평부원군(新豐府院君)에 봉해졌다. 광해군 원년(1609) 증광시(增廣試)에서 을과(乙科) 1등으로 급제하여 승문원 검열, 주서 등의 관직을 거쳤다. 광해군 때 김직재의 무옥(誣獄)에 연루되어 파직되었으나,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에 참여하여 12년 만에 조정에 복귀하여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책훈되었고, 대사헌, 이조판서, 나주목사,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인조 15년(1637) 우의정에 임명되었으나, 모친상을 이유로 18차례나 상소를 올려 사양하고, 이듬해 신병이 깊어져 5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효종 6년(1655)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문충(文忠)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천문(天文)·지리(地理)·의술(醫術)·병서(兵書) 등 각종 학문과 서화에 능통하였고, 특히 문장에 뛰어나 이정구, 신희, 이식과 더불어 당대 조선 문학의 사대가(四大家)라고 불린다. 많은 저서가 있었다고 하나 대부분 없어지고, 현재 『계곡만필(谿谷漫筆)』, 『계곡집』, 『음부경주해(陰符經註解)』 등이 전해진다.

봉분 앞에는 묘비와 그 앞에 혼유석·상석·향로석이 놓여 있고 좌우에 문신석인 두 쌍과 망주석이 배치되어 있다. 신도비는 묘역에서 서쪽으로 약 70m 떨어져 있는데, 규모는 높이 2.65m, 폭 1.3m, 두께 32cm이며, 비개(碑蓋)는 옥개(屋蓋) 위에 용(龍)이 조각되어 있다. 이 신도비는 길이 4.4m, 폭 2.5m, 높이 1.3m 규모의 귀부 위에 세워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도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귀부를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묘소에는 현종 어제(御題)의 표액(表額)과 그의 아들 선징의 음기(陰記)로 된 표석 및 정두경(鄭斗卿)이 찬(撰)한 지석이 있다. 숙종 2년(1676) 10월에 세운 이 신도비의 비문은 영중추부사 송시열이 짓고, 글씨는 청평위 심익현이 썼으며, 전자(篆字)는 광성부원군 김만기가 하였다. 묘역 주변에는 선생의 부친 장운익(張雲翼, 1561~1599 이조판서) 신도비를 비롯하여 아들 장선징(張善徵, 1614~1678 예조판서), 손 장훤(張愼, 1635~1686 천안군수), 증손 장진환(張震煥, 1646~1722 예산현감) 등의 묘가 있다.

묘역에서 동쪽으로 약 500m 지점에는 효종비 인선왕후가 부친(장유)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하여 건립(1601. 효종1)하였다는 원찰 법련사지가 있고, 현재의 법련사는 1989년에 건립하였는데 묘역에서 북쪽으로 약 1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법련사 아래에는 선생의 종택(宗宅, 조남동 21)이 있다.



9. 하연 선생 묘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 3호
- ◎ 지정연월일 : 1986년 3월 3일
- ◎ 소재지 : 시흥시 신천동 산12
- ◎ 시대 : 묘 - 단종 1년(1453), 신도비 - 1940 · 1995

하연(河演, 1376~1453) 선생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연량(淵亮), 호는 경재(敬齋) · 신희옹(新稀翁),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태조 5년(1396)에 문과에 급제하여 집의, 대사헌, 좌찬성,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하고, 편서에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 『진양연고(晉陽聯藁)』가 있으며, 저서로는 『경재집(敬齋集)』이 있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묘는 풍수로 보아 무궁단좌형(武公端坐形)으로 후세에 인재 부귀가 끊이질 않을 명당지로 알려지고 있다. 묘의 좌형은 자좌오향(子坐午向)으로 남향이다. 묘는 소래산 중턱 남쪽기슭에 있는데, 묘역을 중심으로 앞 중앙에 상석과 향로석이 놓여 있으며, 우측에 묘비, 좌측에 장명등, 좌우에 문신석인과 석양(石羊) 한 쌍이 배치되어 있다. 묘는 정경부인 성산 이씨와의 합장이다. 정경부인 성산 이씨는 묘비 및 『진양하씨대동보』에도 성산 이씨로 기록되어 있다. 묘비의 비신은 높이 1.33m, 폭 51cm, 두께 20cm이다.

신도비는 묘소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비문은 남지(南智)가 짓고 글씨는 김교덕(金敎惠)이 썼으며 아울러 전자(篆字)하였다. 이 신도비는 1940년 10월에 건립하였는데 진주 하씨 문효공파 중앙종친회측에 따르면, 이 비문은 선생의 사망 후 선생의 3남인 하우명이 남지에게 의뢰하여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 뒤 1995년에 이가원(李家源)교수에게 신도비명을 의뢰 새로 신도비를 세웠다. 묘역 주변에는 하우명(河友明, 1413~1493 동지중추부사, 호자)과 손 하철석(河哲石, 1432~1500 용양위 호군)의 묘와 선생의 2남 계명(悌明, 1407~1457, 예조 좌랑)과 손 하중호(河仲浩, 1425~? 판관)의 묘역이 있다. 묘 아래에는 선생의 재사(齋舍)인 소산재(蘇山齋, 또는 소산서원)가 있다. 재실은 세조 1년(1455)에 세워졌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된 뒤 1963년에 세웠고, 다시 1995년에 건립하면서 소산서원(蘇山書院)으로 개칭하였다.



10. 류자신 선생 묘 및 신도비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4호
- ◎ 지정연월일 : 2000년 1월 31일(2004년 9월 20일 확대지정)
- ◎ 소재지 : 시흥시 능곡동 산32·617
- ◎ 시대 : 묘 - 광해군 4년(1612), 신도비 - 광해군 9년(1617),
영모재 - 고종 22년(1885) · 행랑채 - 고종 6년(1869)

류자신(柳自新, 1541~1612)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지언(止彦),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명종 19년(1564)에 진사시에 오른 후 김포현령, 광주목사, 한성부판윤, 개성유수 등을 역임하였고, 셋째 딸이 광해군 비(光海君妃)가 되자 문양부원군(文陽府院君)에 진봉되었다.

묘역은 옥녀국부형(玉女局部形)으로 묘지문에 따르면 시흥지방의 팔명당(八明堂)에 속한다. 묘의 배치는 특이하게도 류잠(柳潛 1509~1576 공조판서·부친)·류덕신(柳德新, 1548~1617 돈령부도정·류잠의 둘째아들)·류희경(柳希經, 1561~1583 진사·큰 아들)·류자신의 묘 순으로 배치되었다. 묘역 내, 석물들은 39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거의 마멸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다. 다른 묘역의 석물 배치와 차이는 없고 상석 옆 양쪽에 받침돌이 있다. 신도비는 묘역에서 동남 방향으로 약 400m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이 비는 본래 현 위치에서 동쪽으로 약 150m 지점에 있었던 것인데, 자손의 번성을 위하여 광복 직후에 당시 돈 8만원의 거금을 들여 이전하였다고 한다. 총높이는 약 4.1m로 귀부는 길이 2.73m, 높이 87cm, 폭 1.87m에 이르며, 비신은 높이 2.07m, 폭 1.14m, 두께 35cm의 규모이다. 귀두(龜頭)는 우측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두꺼운 입술에 송곳니가 드러나 있고 몸집에 비해 머리가 큰 특징이 있다. 귀갑(龜甲)을 두른 등 위로는 연화좌대(蓮花座臺)를 마련하여 육중한 비신을 받치고 있으며, 이수의 전·후면에는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쌍룡쟁주(雙龍爭珠)의 형태를 생동감 있게 조각해 넣었다. 광해군 9년(1617)에 세워지고 비문은 류근(柳根)이 짓고, 김상용(金尙容)이 전하였다. 글씨는 병조참의(兵曹參議) 오정(吳靖)이 썼다. 전액(篆額)과 비제에 시호가 들어갈 두 자리를 비워두었으나 추각(追刻)하지 못하였다.

묘역 아래 약 100m 떨어져 재실(영모재)이 고종 22년(1885)에 건립되었는데, 안채·문간채로 구성된 행랑채와 영모재(재실)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 건물인 영모재가 가장 안쪽에 약간 높은 터 위에 있으며, ‘튼ㄱ자’ 형식으로 이루어진 행랑채는 안마당을 가운데 두고 ‘ㄱ자’형의 안채와 ‘ㄴ자’형의 문간채가 마주보고 있는 형태이다. 안채는 잘 다듬은 초석, 기둥과 보, 도리 등의 치목수법, 부드러운 추녀와 시원한 선자연(扇子椽, 부챗살 모양의 서까래)의 면모를 볼 때, 지역의 목수가 아닌 경장(京匠)이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행랑채는 고종 6년(1869) 건립되었는데, 시흥관내에 현존하는 가옥으로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생각된다. 건축 연대와 구조적 독특성이 문화재적 가치로 인정되어 향토유적 제4호(2000년 1월 31일)로 지정되어 있던 『류자신 선생 묘 및 신도비』에 포함, 2004년 10월 15일에 추가 지정되었다. 2008년 9월에 전통방식에 따라 원형으로 전면 복원·정비하였다.



12. 무지내동 태봉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6호
- ◎ 지정연월일 : 1990년 5월 4일
- ◎ 소재지 : 시흥시 무지내동 산15-12
- ◎ 시대 : 조선시대

태봉(胎封)은 일반적으로 태실(胎室), 태묘(胎墓) 등으로 불리는데, 산모가 태아를 출산하고 난 후에 나오는 태반을 묻는 장소를 말한다. 태는 태아의 생명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태아가 출산된 뒤에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보관되었다.

시흥시 관내에는 모두 세 곳에 태실이 있었는데, 칠리제저수지에서 서쪽으로 금이동 가는 길목에 있는 태장뿌리(산)와 거모동 군자초등학교 앞에 태봉에 있었다. 금이동 태봉은 근년에 묘소 설치 등으로 파괴, 분실되었고, 후자 역시 묘소 설치 후 현재는 동원아파트가 들어섰다. 무지내동 태봉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88년으로, 당시 시흥군지 편찬위원회의故이한기 상임위원이 『시흥군지』의 지명유래를 집필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제보로 확인되었다.

이 태실은 해발 50m 되는 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는데, 암반층을 지름 2.5m, 깊이 2m로 파낸 후 그 속에 석함(石函)을 묻은 조선시대의 태실지(胎室址)이다. 태실이 자리잡고 있는 이곳은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구룡지의 정상부로, 한눈에 명당임을 알 수가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석함뿐으로 석함의 크기는 지름 85cm, 높이 47cm, 두께 16cm의 대리석으로 만든 것이다. 석함은 훼손되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동쪽 부분에는 도굴 갱(坑)으로 보이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어 이 속에 넣은 향아리와 태지석함(胎誌石函)은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실의 태실 혹은 사대부가(士大夫家)의 태실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정밀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태봉은 1990년에 들어선 육군부대 영내에 위치해 있다.



13. 생금집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7호
- ◎ 지정연월일 : 1994년 10월 20일
- ◎ 소재지 : 시흥시 죽율동 597
- ◎ 시대 : 1913년

생금집은 금녕 김씨 자손이 12대째 세거하고 있던 곳으로, 인근에 널리 알려진 생금집 전설의 현장이기도 하다. 현재의 가옥은 1913년 개축한 것으로 부분적인 개수는 있으나 건립 당초의 기본적인 가옥구조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가옥은 이 지역 전통가옥의 생활모습을 비교적 충실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상이 반영되고, 일하는 가치,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고취시키는 생금집이라는 전설이 만들어진 장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건물은 안채가 12칸, 바깥채가 여섯칸으로 규모는 149.84㎡에 이른다(가옥고증 : 경기대 김동욱 교수). 한편, 생금집에 얹힌 전설은 다음과 같다.

조선조 말엽 죽율동에 살았던 김창완(金昌寬, 1845~1929)이 마을로부터 10여 리 떨어진 옥구도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우물(생금우물)에 샛노란 털을 가진 닭이 한 마리 있어 보자기에 곱게 싸다가 집 골방 반닫이에 넣었다. 이 때 보자기에 썩던 닭털이 하나 떨어져 있어 이튿날 한양에 있는 금방에 가서 물어 보니 금붙이로 확인되었다. 한양에서 돌아온 뒤 곧 반닫이를 열어보니 닭은 모두 황금 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황금 닭털을 모아 새로운 금방을 찾아다니며 돈으로 바꾸어 땅도 장만하고 새 집도 지었는데 그 집이 바로 '생금집'이라고 한다. 한편 소문을 듣고 출가했던 딸이 찾아와 생금닭을 몰래 훔쳐가다 중간에서 보자기를 펴 보니 번쩍이던 황금 닭은 돌덩이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다. 순간 딸은 황금닭의 주인은 따로 있음을 깨닫고 친정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황금닭으로는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뒤로 가족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욕심내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고 한다.



14. 관곡지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8호
- ◎ 지정연월일 : 1986년 3월 3일
- ◎ 소재지 : 시흥시 하중동 208
- ◎ 시대 : 조선시대

관곡지(官谷池)는 조선 전기의 명신(名臣)이며 농학자로 이름이 높은 강희맹(姜希孟, 1424~1483) 선생과 인연이 깊은 연못이다. 평소 농학 발전에 대해 깊은 연구와 관심을 기울였던 선생은 세조 9년(1463)에 중추원부사로 진헌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게 되었다. 선생이 중국에서 돌아올 때 남경(南京)에 있는 전당지(錢塘池)에서 연꽃씨를 채취해 귀국한 후, 당시 안산군 초산면 하중리(下中里)였던 현 시흥시 하중동의 작은 연못(위치: 하중동208)에 재배를 하게 되었다. 강희맹 선생이 채취해온 전당연(錢塘蓮)은 다른 연꽃과는 달리 꽃의 색이 희고, 꽃잎은 뽕죽하며 꽃의 끝부분은 담홍색을 띠는 연꽃이었는데, 이 품종은 이 곳에서 재배에 성공함에 따라 이후 널리 퍼질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안산군의 별호(別號)를 세조 12년(1466)부터 '연성(蓮城)'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이후 관곡지는 수초(水草)가 성하여 황폐해졌는데, 현종 10년(1844)에 안산군수로 부임했던 권용정(權用正)이 이듬해 봄 장정들을 동원하여 못을 파내게 하였다. 여름이 되자, 연꽃의 잎이 중국 전당의 것과 같이 두 줄기 자라나게 되었다. 권용정은 당시 경기도 관찰사였던 이계조(李啓朝)에게 서목(書目)을 올려 못을 관리하기 위하여 여섯 명의 연지기[連直]를 두도록 청하였는데, 이 서목이 받아들여져 관곡지에는 연지기가 배치되었으며, 혹시 연지기에 결원이 생기면 마을 주민이 이를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들 연지기에는 각종 노역(勞役), 부역(賦役), 포세(布稅), 양곡세(糧穀稅)를 제외시켜 주고 오직 못만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전당연의 종류가 없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내력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권용정이 관곡지의 유래와 수축 경과, 연지기 배치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연지사적(蓮池事蹟)』과 『연지수치후보초(蓮池修治後報草)』라는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관곡지는 강희맹 선생의 사위인 사헌부 감찰 권만형(權曼衡)의 가문에서 현재까지 대대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못의 규모는 가로 23m, 세로 18.5m이다.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는 정조 21년(1797)에 수원 현릉원(顯隆園)을 행차하는 길에 안산 관아(官衙)에서 유숙하고, 안산 관내의 선비를 대상으로 과거를 실시하면서 어제(御題)로 『강희맹이 사신으로 중국 남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전당에서 붉은 연꽃씨를 채취해 왔는데, 그로부터 안산군의 별호를 '연성' 이라고 했다』는 시제(詩題)를 내렸다는 설도 전한다.

15. 영웅대군 묘 및 신도비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9호
- ◎ 지정연월일 : 1988년 5월 31일
- ◎ 소재지 : 시흥시 군자동 산70
- ◎ 시대 : 묘 - 세조13년(1467), 신도비 - 연산군 4년(1498)

영웅대군(永膺大君, 1434~1467)은 세종대왕의 8남으로 어머니는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이며, 자는 명지(明之), 호는 서곡(西谷), 이름은 염(琰)이다. 세종 23년(1441)에 영흥대군(永興大君), 세종 25년(1443)에 역양대군(歷陽大君), 세종 29년(1447)에 영웅대군(永膺大君)으로 개봉되었다. 서화에 재능이 있었고, 특히 음률(音律)에 조예가 깊어 『명황계감(明皇誠鑑)』의 가사를 번역하였다. 성품이 순후(醇厚)하고 총명하였으며, 세종이 승하하실 때 영웅대군의 거처인 동별궁에 옮겨와 돌아가실 정도로 세종의 총애가 깊었다.

광무 4년(1900) 9월 17일에 대군의 첫 부인 춘성부부인(春城府夫人) 해주 정씨(海州鄭氏)와 둘째 부인 대방부부인(帶方府夫人) 여산 송씨(礪山宋氏)의 묘를 현 위치로 천장한 후 1968년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던 셋째부인 연성부부인(延城府夫人) 연안 김씨(延安金氏) 및 아들 청풍군(靑風君)과 손 화림정(花林正), 그리고 증손 흥선부정(興善副正), 흥정부수(興貞副守)의 묘를 옮겨 봉안하였다.

묘는 대군과 해주 정씨 및 여산 송씨와 합장이고 그 왼쪽에 연안 김씨의 묘가 자리잡았으며, 두 묘 가운데 앞에는 묘비와 상석, 향로석, 장명등이, 그리고 그 좌우에는 망주석과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신도비는 연산군 4년(1498)에 세운 것으로 묘에서 동남쪽으로 약 50m 떨어져 있는데, 기단석 대신에 귀부 위에다 비신을 세웠고, 다시 그 위에 옥개석 대신에 이수(臺)를 얹었다.

비신의 규모는 높이 1.45m, 폭 84cm, 두께 21cm이고, 비면에는 『永膺大君 神道碑(영웅대군 신도비)』란 전제(篆題)와 『有明朝鮮國 永膺大君諡敬孝公神道碑銘(유명조선국 영웅대군시경호공신도비명)』이란 비제(碑題)가 새겨져 있다. 비문은 도승지 임사홍(任士洪)이 짓고 아울러 전액(篆額)했으며, 글씨는 용양위부사정 박경(朴耕)이 썼다. 묘 입구에는 대군의 시호명을 취한 재실(경효재, 1969년경 건립)과 사당(경효사, 1997년 건립)이 각각 위치해 있으며, 2008년 홍살문을 세웠다.



16. 하우명 효자정각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1호
- ◎ 지정연월일 : 1988년 5월 31일
- ◎ 소재지 : 시흥시 신천동 422
- ◎ 시대 : 조선시대

조선 전기의 효자 하우명(河友明, 1413~1493)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각(旌閣)이다. 선생의 호는 연당(蓮塘), 본관은 진주(晉州)로 서울 돈화문 밖에서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하연(河演, 1376~1453)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항상 손수 조리한 찬(饌)으로만 상(床)을 올렸으며, 선생의 어머니 또한 아들이 직접 조리하지 않았을 때는 음식을 들지 않았다고 한다. 마침내 어머니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선생은 너무나 애통하고 상심하여 몸을 돌보지 않았고 초췌하기 그지 없었으나, 제수(祭需)는 반드시 손수 마련하였으며, 뭇나무나 물 깃는 일도 몸소 하는 등 정성을 다해 제사를 받들었다고 한다. 3년 동안의 시묘(侍墓) 살이를 마친 후에도 어머니를 추모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영당(影堂)을 세우고 철따라 나는 새로운 제수를 마련하여 제사를 모셨다. 기제(忌祭) 때는 "우리 어머님께서는 평소에 자식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셨다."고 하면서 먼저 죽은 형제자매의 신위(神位)를 나란히 배치하여 제사를 지냈다. 벼슬에 뜻이 없어 세조가 두 번씩이나 도진무절제사(都鎭撫節制使)에 등용코자 하였으나 신병을 이유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성종 4년(1473) 지방관이 그의 효행을 상신하자 나라에서 정각을 세우고 호역(戶役)을 면해 주었다. 정각은 맞배지붕에 한식기와를 얹은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의 방풍판(防風板)이 달린 목조건물이며, 정려비(旌閣碑)는 높이 1.27m, 폭 61cm, 두께 22cm의 규모이다. 이 비각은 1700년대에 처음 세워진 후, 후대에 내려오면서 수차에 걸쳐 중수(重修) 하였으나 관리 소홀과 비바람 등으로 인해 원형을 잃어가자 1988년에 전면 보수하였다. 이어 1997년에 담장을 설치하였고, 2008년 다시 정각을 보수하였다. 1995년에는 조선 성종조에 좌찬성을 지내고 『금양잡록(衿陽雜錄)』을 저술한 강희맹의 「소래하중추정문기비(蘇萊河中樞旌門記碑)」를 세웠다.



17. 박동량 선생 묘 및 신도비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2호
- ◎ 지정연월일 : 1988년 5월 31일
- ◎ 소재지 : 시흥시 군자동 산22-2
- ◎ 시대 : 묘 - 인조 13년(1635), 신도비 - 영조 1년(1725)

박동량(朴東亮, 1569~1635)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룡(子龍), 호는 오창(梧窓)·기재(寄齋)·봉주(鳳洲),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선조 23년(1590)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1592년 임진왜란 때 병조좌랑으로 의주(義州)로 선조를 호종하였다. 중국어에 능통하여 의주에 주재하는 동안 선조가 명의 관원과 장수들을 만날 때, 반드시 곁에 있게 하여 대중외교(對中外交)에 이바지하였으며, 신임이 두터웠다. 이듬해 도승지를 거쳐 1596년 이조참판이 되어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정유재란 때는 왕비와 후궁 일행을 호위하여 황해도 수안(遂安)에 진주, 민폐를 제거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보살폈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관찰사를 거쳐 이조참판,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선조 때 한옹인·유영경·서성·신흙·허성·한준겸과 함께 영창대군을 잘 보호하라는 부탁을 받은 이른바 '유교(遺敎) 7신'의 한사람으로 광해군 때와 인조반정의 정치적 혼란기를 맞아 유배와 복관을 반복하다가 후에 아들 미(彌)와 의(漪)에 의해 복관되어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에 『기재사초(寄齋史草)』·『기재잡기(寄齋雜記)』·『방일유고(放逸遺稿)』 등이 있고, 그림으로 「계산초정도(溪山草亭圖)」가 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묘는 군자봉 동쪽 능선상에 자리잡았으며, 묘 아래에는 아들 박미(朴彌, 금양위)의 묘가 있다. 묘역의 석물 배치는 봉분 앞에 상석·향로석 등과 그 좌우에 묘비·망주석 등이 있다. 신도비는 묘소에서 동북쪽으로 약 250m 지점에 아들(박미)의 신도비와 함께 서 있다. 신도비의 비문은 이조판서 김상헌(金尙憲)이 인조 19년(1641)에 찬술(撰述)하였으나, 상사(喪事)가 잇달아서 돌에 새겨 세우지 못하다가 영조 1년(1725)에 이르러 그의 5대손인 박사익(朴師益)이 강화유수(江華留守)로 있을 때 세운 것이다. 신도비는 2단의 기단석 위에 석신(石身)을 세우고 그 위에 이수를 올려놓았는데, 첫 번째 기단석은 땅속에 묻혀 크기를 알 수가 없고, 두 번째 기단석은 높이 1.79m, 폭 1.23m이며, 비신은 높이 2.45m, 폭 1.13m, 두께 36cm의 규모인데, 석질은 오석(烏石)에 이수는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을 조각해 놓았다. 비문의 글씨는 송시열(宋時烈)이 썼고, 민유중(閔維重)이 전자(篆字)하였다. 신도비의 추기(追記)는 현손 전 장령(前掌令) 박필주(朴弼周)가 기록하고, 글씨는 5세손 강화유수 박사익이 썼다. 1993년 신도비각과 사적비(글: 단국대 박천규 교수)가 오창공파종중에 의해 건립되었다.



18. 김준용 장군 묘 및 신도비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3호
- ◎ 지정연월일 : 1988년 5월 31일
- ◎ 소재지 : 시흥시 군자동 산138-1
- ◎ 시대 : 묘 - 인조 20년(1642), 신도비 - 숙종 11년(1685)

김준용(金俊龍, 1586~1642) 장군은 조선중기의 무신으로 자는 수부(秀夫), 본관은 원주(原州)이다. 선조 41년(1607)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고, 광해군 9년(1617) 인동도호부사, 영주군수를 거쳐 인조 14년(1636) 전라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다. 같은 해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관할 군사를 이끌고 적에게 포위당한 남한산성으로 진군하면서 곳곳에서 군사를 모아 병력을 보강하였다. 직산(稷山)을 경유, 용인의 광교산(光敎山)에 이르러 험준한 산세를 이용, 포진하였다가 공경(孔耿)의 청나라 군대 수만이 공격해오자 청태조의 부마 백양고라(白羊高羅) 등 많은 적병을 사살하는 전공을 올렸다. 이후 김해도호부사, 경상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시호는 충양(忠襄)이다.

묘는 본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었으나 도시화계획에 의해 1972년에 현 위치로 이장하였다. 묘역에는 봉분을 중심으로 봉분 앞에 상석, 향로석이 있고, 좌우에 동자석(童子石) 한 쌍이 서 있다. 이 동자석은 머리에 관(冠)을 쓰고 있지 않아 문신석인이라 할 수는 없으나 도포를 입고 홀을 쥐고 있는 모양은 문신석인과 꼭 같다. 한 단 아래에 문신석인이 좌우에 서 있다. 신도비는 숙종 11년(1685)에 건립한 것으로 묘소에서 서쪽으로 약 80m 떨어진 노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두단의 기반석 위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옥개석(屋蓋石)을 얹었다. 첫 번째 기반석은 땅속에 묻혀 있어 정확한 규모를 알 수가 없고, 두 번째 기반석은 높이 1.03m, 폭 72cm, 두께 48cm이며, 전면에 운문(雲文)과 연판문(蓮瓣文)을 정교하게 새겨놓아 세심하게 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신은 오석(烏石)으로 높이 1.4m, 폭 65cm, 두께 22cm의 규모이며 옥개석은 팔작지붕 양식이다. 비문은 허목(許穆)이 짓고 글씨와 전자(篆字)는 오시복(吳始復)이 썼다.

한편 수원 광교산(위치, 수원시 하광교동 산 1-1)에 경기도 기념물 제38호인 「김준용 장군 전승지 및 비」가 있다. 전언(傳言)에 의하면, 정조(正祖) 때 화성 축성에 필요한 석재를 구하러 광교산에 간 사람들에게서 병자호란 때(1636) 수원 광교산 전투에서 큰 공훈을 세운 장군의 얘기를 들은 축성 책임자 채제공(蔡濟恭)이 그 사실을 새기게 했다고 한다. 암반을 갈아 '충양공김준룡장군전승지(忠襄公金俊龍將軍戰勝地)'라 새기고, 그 좌우에 '병자호란공제호남병근왕지차살청삼대장(丙子胡亂公提湖南兵勤王至此殺清三大將)'이라는 전승 내용을 새겨놓았다.

19. 군자성황사지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4호
- ◎ 지정연월일 : 2002년 3월 15일
- ◎ 소재지 : 시흥시 군자동 산22-3
- ◎ 시대 : 고려초

마을의 수호신을 가리키는 말을 성황(城隍) 또는 서낭이라고 한다. 이성계는 즉위 후 여러 산천의 서낭을 제사했으며, 각 고을의 성황에서는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

군자봉(君子峰) 정상에 있었던 성황사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 「안산군 사묘조」에 "성황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군의 서쪽 21리에 있고 하나는 군의 서쪽 32리에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최소한 조선 성종조 이전에 이미 성황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위 기록에서 21리 떨어진 곳의 성황사가 군자성황사이고, 32리 떨어진 곳의 성황사는 안산시 성곡동에 있는 잣머리성황사이다.

이곳에는 중국으로 가던 서희와 신라 제56대 경순왕인 김부와 왕비 안씨, 그 어머니 홍씨의 혼령과의 만남에 관한 전설이 내려온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이곳의 성황당은 고려 성종 때 부터 모셔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속학자 장철수는 군자봉의 성황사는 김부를 모신 것이 아니라 이곳을 식읍으로 받은 김은부(金殷傅, 고려 현종의 장인)를 성황신으로 모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김부와 김은부의 이름이 유사한 데서 비롯된 착오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곳이 그 부인당이라는 전설을 함께 미루어 볼 때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 이곳의 성황당 기원설에서 보듯이 한 지역 내에서 원한 관계에 있는 인격신이 동시에 숭배되거나 신앙 대상으로 모셔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곳 주민들에 의하면 성황사는 최근에 설치된 성황당에서 약간 북쪽으로 떨어진 평평한 곳에 있었다고 한다. 이 성황사가 최후로 모습을 보인 것은 1960년대 초로 알려지고 있다. 즉, 외래 종교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20. 조남동 사직단지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5호
- ◎ 지정연월일 : 2002년 3월 15일
- ◎ 소재지 : 시흥시 조남동 산71
- ◎ 시대 : 조선시대

사직(社稷)은 국토지주(國土之主)의 '사(社)'와 오곡지장(五穀之長)인 '직(稷)'의 두 신위(神位)에게 제사드리는 곳으로, 단(壇)을 쌓고 봉사(奉祀)하므로 '사직단'이라고 칭한다.

사직단은 왕을 대리하는 지방수령이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관아, 향교와 더불어 지방 읍치의 기본 요건이다. 따라서 옛 안산관아가 위치한 안산시 수암동의 관아지, 향교지와 더불어 안산군을 이루던 일체의 시설이다.

설립시기는 안산군 관아를 안산 목내동에서 안산시 수암동으로 옮긴 1441년 이후로 보고 있으며, 폐치시기는 일제가 강점한 1910년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사직단은 정방형의 토축단(土築壇)으로 한 면의 길이는 13.5m이고, 높이는 1.5m 정도이다. 사직단의 내부는 외곽부보다 30~50cm 함몰되어 있으며, 외곽부의 안쪽에는 부분적으로 정연하게 쌓은 석축이 노출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토단(土壇)이 무너지지 않도록 폭 1m 정도의 석심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다져 쌓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직단의 각면의 중간부분에 2m 폭의 함몰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네 방향에서 정상부로 올라가는 흙으로 된 계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직단의 각 면은 동, 서, 남, 북을 가리키고 있으나 전체적인 방향은 약 20도 정도 틀어진 상태이다. 사직단 위에는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있으며 곳곳에서 와편(瓦片)이 다량 발견되고 있어 윗부분에 중요제사터인 만큼 제사를 집전하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되는 와편은 대체로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점토성이 강하다. 두께는 2cm 정도이며 표면은 무문이 대부분이고, 이면은 포문(布文)이 있는 조선시대의 기와들이다.



21. 윤민헌 선생 묘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6호
- ◎ 지정연월일 : 2002년 3월 15일
- ◎ 소재지 : 시흥시 산현동 산53
- ◎ 시대 : 묘 - 인조6년(1628), 묘갈 - 숙종 35년(1709)

윤민헌(尹民獻, 1562~1628)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익세(翼世), 호는 태비(苔扉)이다. 아버지는 호조좌랑 엄(儼)이며, 어머니는 예조판서 김주(金澍)의 딸이다. 울곡(栗谷) 이이(李珥),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선조 21년(1588) 사마시에 합격하여 선공감역(繕工監役)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광해군 1년(1609)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외교문서 담당 관청)에 들어갔다. 그 뒤 형조좌랑·전라도도사·형조정랑 등을 거쳤으며, 광해군 때 봉당간의 대립으로 정국이 어지럽자 1618년 대동찰방을 마지막으로 안산(현재의 시흥)으로 물러나 살았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군자감정(軍資監正)에 임명되고, 장령·내섬시정을 거쳐 평안도절도사로 나갔다. 인조 2년(1624)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공주로 왕을 호종한 공으로 통정대부(정3품)에 오르고,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공조참의에 이르렀으나 병으로 사직하여, 안산으로 돌아와 타계하였다. 1646년(인조 24)에 대제학(大提學),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다.

그는 자성(資性)이 순정(純正)하고, 일을 당하면 스스로 지킬 줄 알았으며, 경사(經史)에 밝고 시문에 능하였다고 한다. 특히 조맹부(趙孟頫)를 사숙(私淑)하여 해서를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렸다.

묘소는 부인 연안 김씨와 합장으로, 인조 6년(1628)에 조성되었는데, 호랑이가 엮드려 있는 복호혈(伏虎穴)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묘갈은 숙종 35년(1709)에 세운 것으로, 형태는 당시 유행하던 방부개석의 양식인데, 기단석 위에 갈색의 대리석 비신(碑身)으로 다듬었다. 규모는 2.34m×97cm×32cm이다. 글씨는 선생의 손자인 평안도 관찰사 윤지인(尹趾仁, 1656~1718)이 썼고, 함흥부윤 윤덕준(尹德駿, 1658~1717)이 전(篆)을 올려 비신의 앞면과 뒷면에 음각하였다. 이 묘갈은 시흥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보존상태가 좋고 양식이 독특하여 조선 중기의 묘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22. 신안 주씨 삼세적선비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7호
- ◎ 지정연월일 : 2005년 7월 14일
- ◎ 소재지 : 시흥시 과림동 355
- ◎ 시대 : 1917년

신안 주씨 삼세적선비(新安 朱氏 三世積善碑)는 과림리 출신(현 과림동)의 주석범(朱錫範, 1815~1880), 주순원(朱順元, 1836~1895), 주인식(朱寅植, 1862~1952)·주영식(朱永植, 1867~1952) 등 3세가 자선을 베풀자 은혜를 입은 과림동 중림·부라위와 계수리(현 계수동) 안골 등 주민들이 세운 비(碑)이다.

신안 주씨 삼세적선비 창립발기문에 따르면 과림리 중림 출신의 주인식과 그의 부친 주순원, 그리고 조부 주석범 등 신안 주씨 3대에 걸쳐 과림리 중림·부라위와 계수리 안골 주민들(절양빈민)에게 춘궁기 때 구휼하고 세찬(歲饑)을 나누어 주고 영농비를 지원해 주자 은혜를 입은 해당주민 한궁렬(韓兢烈), 민재철(閔載喆), 장선엽(張善燁), 김상준(金相俊) 씨 등이 적선비 창립을 발기하고 주민 전원이 협동하여 1917년 4월 20일에 적선비를 건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922년 2월에는 적선비를 풍우(風雨)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민정현(閔正鉉)·한궁렬·이순구(李順九) 씨 등 39명이 발기하여 적선비각을 건립하였다. 이 비를 통하여 신안 주씨 삼대에 걸쳐 이곳 주민들에게 얼마나 자선을 베풀었는가를 알 수 있다.



23. 이숙번 묘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8호
- ◎ 지정연월일 : 2006년 12월 5일
- ◎ 소재지 : 시흥시 산현동 산71
- ◎ 시대 : 조선 전기

이숙번(李叔蕃, 1373~1440)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성(安城)이며 경(峒)의 아들이다. 태조 2년(1393)문과에 급제한 뒤 1398년에 지안산군사(知安山郡事)로 있으면서 이방원(李芳遠, 훗날의 태종)을 도와 군사를 출동시켜 제1차 왕자의 난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공으로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안성군(安城君)에 봉해졌으며, 우부승지에 임명되었다.

태종이 즉위하자 좌명공신(佐命功臣) 1등이 되었으며 좌군총제, 지공거, 중군총제 등 여러 벼슬을 거쳐 1412년 말에는 종1품 승정대부(崇政大夫)로 승진하였다. 1413년에 병조판서가 되고, 이듬해 의정부찬성사가 되었는데, 뒤에 의정부의 직제 개편에 따라 동판의정부사(同判議政府事)·좌참찬·찬성이 되었다.

한편, 1414년에는 지춘추관사로서 영춘추관사 하륜(河崐) 등과 함께 『고려사(高麗史)』 중 공민왕 이후의 사실을 고쳐서 바로잡도록 명을 받았다. 이듬해 안성부원군(安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이숙번 묘는 물왕저수지 인근에 있는데 묘 앞에는 문인석상 4기, 장명등 1기 등 석물이 있다. 시흥시에서 유일한 사각형 형태의 무덤으로 15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이다. 사각형 형태의 무덤은 고려 말의 형식과 유사한 것으로 조선 초기 묘제 연구의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후에 후손들이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원형을 잃었으나 2006년에 다시 정밀발굴조사에 따라 원형을 회복하고 주변을 정비하였다.

24. 진덕사 석조약사불좌상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9호
- ◎ 지정연월일 : 2006년 12월 5일
- ◎ 소재지 : 시흥시 능곡동 산40
- ◎ 시대 : 조선 말기

진덕사 석조약사불좌상(眞德寺 石造藥師佛坐像)은 높이가 105cm, 어깨 폭 45cm, 무릎 높이 24cm, 무릎 폭 62cm의 불상으로서 1900년대를 전후하여 민간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미륵불처럼 만든 약사여래이다. 신체하부는 다소 비대하고 머리 쪽은 작아지는 양식을 보이는데, 불교문화와 민간신앙이 결합된 특이한 양식으로서 연대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 불상의 영험함이 능곡동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며 돌 자체의 빛깔이 두려운 느낌을 주어 몸 전체에 석고를 발라 놓았다고 한다. 전통에 충실한 양식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신앙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지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약사불(藥師佛)이란, 동방의 정유리세계(淨瑠璃世界)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유하고 재앙을 소멸시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부처로 약사여래, 대의왕불(大醫王佛)이라고도 한다. 약사여래는 보살로 수행할 때, 12가지 서원(誓願)을 세워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이른 바 ‘약사십이대원(藥師十二大願)’이라고 한다. ‘약사십이대원’은 대개 중생을 병고(病苦)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의식주 전반에 걸친 구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약사십이대원’ 이외에도 외적의 침입이나, 국가가 큰 재난에 처하였을 때, 천재지변 등이 닥쳤을 때에도 약사불의 본원력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믿는 신앙형태를 기반으로 한다. 약사불의 가호(加護)를 빌면 모든 재액이 소멸되고 신병이 치유된다고 하는 실리적인 신앙은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강한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약사불은 왼손에 약병(藥瓶)이나 약함(藥盒)을 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진덕사 석조약사불의 경우, 양손을 중앙으로 가지런히 모아 약병을 들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25. 능곡동 선사유적

-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20호
- ◎ 지정연월일 : 2011년 11월 2일
- ◎ 소재지 : 시흥시 능곡동 479외
- ◎ 시대 : 신석기시대

시흥 능곡동 선사유적은 2005년 가을 능곡택지개발지구(한국토지공사)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발견되었다. 현재 능곡고등학교와 마주보고 있으며, 물왕저수지로 우회하기 직전에 통과하는 터널식 도로로 연결되는 언덕 지형에 만들어진 작은 공원이 바로 이 능곡동 선사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조성된 유적공원이다.

능곡동과 군자동 일원에 계획된 능곡택지개발지구의 7개 지점에 대한 대규모 발굴조사는 2004년 10월에 시작되어 2007년 가을에야 종료되었다(조사기관 : 경기문화재단부설 경기문화재연구원). 사업 전체 준공을 앞둔 능곡택지개발지구의 능곡동 선사유적이 확인된 지점은 해발 30m 내외의 낮은 구릉 말단부로 능곡지구의 최북단에 해당한다. 이 지점에서는 현재 유적공원으로 보존된 신석기시대 집자리 24기 이외에 청동기시대 집자리 6기와 구덩이 2기, 삼국시대(백제)와 통일신라시대의 무덤 6기, 조선시대 이후의 무덤 107기, 구들, 석렬 등 여러 시대의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도 해발 약 33m의 큰 구릉 능선 정상부를 중심으로 분포한 신석기시대 집자리 24기가 특히 중요한 발견으로 이들은 신석기시대의 마을집단으로 볼 수 있다. 집자리들의 입지와 배치, 규모, 출토유물 등으로 볼 때 능곡동 유적의 학술적 의의가 대단히 높다. 서울·경기지역에서 발견된 최대 규모의 신석기시대 마을유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지역의 선사문화연구를 위한 지극히 중요한 발견인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능곡동의 신석기시대 집자리들을 원위치에 보존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였고, 물왕저수지로 향하는 계획도로는 터널식으로 변경하여 능곡동 유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되었다. 앞으로 능곡동 선사유적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될 것이며 문화유산 배움터로 활용될 계획이다.

26. 물왕동 선정비군

◎ 소재지 : 시흥시 물왕동 319

물왕동 선정비군은 원래 현 위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cm 떨어진 노변에 있었다. 주변 일대는 조선시대 시흥지방 최초의 시장인 방축시장(뒤에 광석시장으로 개칭)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던 곳인데, 1980년대 안양~월곶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현 위치로 옮겨졌다.

현재 3기의 선정비가 있다. 가장 큰 선정비는 1844년부터 1848년까지 안산군수를 지낸 권용정(權用正, 1801~1861)의 영세불망비로 1848년에 건립하였으며 그 규모는 1.33m×58cm×22cm이다. 그는 안산군수에 재임 중 선조(先祖)인 권만형(權蔓衡, 강희맹의 사위) 때부터 관리해온 관곡지(官谷池)를 정비함은 물론 이에 관한 사적(『연지사적(蓮池事蹟)』)을 저술하였다.

두 번째로 큰 선정비는 1871년부터 1873년까지 안산군수를 지낸 박기회(朴氣會)의 거사비(去思碑)로 1873년에 건립하였으며 그 규모는 1.23m×42cm×16cm이다.

3기 중 가장 작은 선정비는 1813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뒤에 형조판서를 역임한 이규현(李奎鉉, 1777~1844)의 영세불망비이다. 1843년에 건립하였으며 그 규모는 1.07m×38cm×17.5cm이다.



27. 군자동 지석묘

◎ 소재지 : 시흥시 거모동 1352

◎ 시대 : 청동기시대

군자동 지석묘는 원래 시흥 지방도로 황고개길에서 남행하여 김준용 장군 묘 및 신도비의 도로안내판을 조금 지나 구지정2길 안에, 80m 가량 직진한 두 번째 골목에서 우회하여 좌우로 들어선 서너 채의 주택들 사이(군자동 354)에 위치하고 있었다.

군자동 지석묘는 2004년 12월 시흥 군자봉 성황제와 관련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학술 고증조사를 수행하던 인하대학교 서영대 교수와 국립민속박물관 장장식 박사가 발견하여 시흥시청 향토사료실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주변 가옥의 담장이 지석묘 개석을 가로지르고 폐자재 등에 둘러싸여 문화재 훼손의 위험이 컸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하여 2005년 경기도와 세종대학교 하문식 교수 등의 현장확인을 거쳐 학술조사 및 보존정비를 위한 긴급예산이 마련되었다.

2007년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결과, 개석(덧개돌 : 250cm×180cm×85cm)과 지석(뿔돌) 3~4매를 갖춘 탁자식 지석묘임을 확인하였다. 지석묘에 관련된 다른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석묘 남쪽 구(溝) 상의 내부 교란층에서는 조선시대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군자동 지석묘는 일부가 파괴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흥 지역에서 확인된 약 15기의 지석묘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계수동 일대의 지석묘군과 안산 선부동 지석묘군, 김포 지역의 지석묘가 대부분 개석식임을 볼 때, 탁자식 지석묘의 새로운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탐문조사에 응한 구지정마을의 촌로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지석묘에 고사를 지내거나 고깃배의 닻줄을 매기도 했던 추억을 기억하고 있다.

한편 발굴조사 완료 이후 군자동 지석묘 주변의 가옥 등 입지문제로 인해 지석묘를 세워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조사단과 전문가들은 군자동 지석묘의 실질적인 보존 및 정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멀지 않은 위치에 지석묘 이전부지를 구하여 지석묘를 복원하고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이에 2009년 가을 인근 거모동에 조성되고 있는 군자근린공원 내에 군자동 지석묘의 이전 복원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군자근린공원 상단 부에 새로 자리잡게 되었다.

28. 계수동 지석묘

◎ 소재지 : 시흥시 계수동 260-4

◎ 시대 : 청동기시대

계수동 지석묘의 덮개돌 규모는 가로 3.15m, 세로 2.62m, 높이 55cm이며, 재질은 오상편마암이다. 또 평면은 부정형(不定形)의 마름모꼴이다. 남방식인 이 지석묘는 덮개돌 아래에서 3개의 받침돌이 확인되었는데 서쪽의 것은 녹니석편암의 암질이고, 북서쪽과 북쪽의 것은 덮개돌과 같은 오상편마암의 재질이다.

다른 지역의 지석묘와는 달리 과거에는 계수동 안골 주민들에 의해 해마다 장승제가 거행되기도 하였다. 이 장승제는 예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음력 10월에 길일을 택해 풍년과 무병을 기원하기 위해 거행되었는데, 이 지석묘 바로 서쪽 곁에 남자장승을 세우고, 전방(동) 약 250m 떨어진 산기슭의 수령 100년이 훨씬 넘은 느티나무 아래에다 여자장승을 세워 풍년, 다산, 무병 등을 기원한 것이다. 장승은 일반적인 장승과는 달리 소나무를 적당하게 다듬어서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붓으로 그려 만들었다고 한다. 장승제를 끝낸 후 장승들은 한 해 동안 남자장승은 마을 뒷산 기슭에 세우고, 여자장승은 마을 앞산(계수초등학교 앞산) 기슭에 세웠다. 이와 같이 지석묘와 장승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 지방문화의 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지석묘가 단순히 무덤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마을을 수호하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마을주민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11월 도시계획에 따라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원 위치에서 서쪽으로 36m 떨어진 현 위치로 이전 복원하였다. 발굴조사 중 계수동 주민들의 제보로 현 지석묘에서 동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야산 구릉지에서 3기의 지석묘가 새로이 확인된 바 있고, 그 곳에서 마제 돌도끼 1점과 무문토기편 1점이 수습된 것으로 보아 안골 일대는 청동기시대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취락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29. 송운 원성모 장군 순국비

◎ 소재지 :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

純忠仗義迪毅亨難一等功臣 平原君 元成模 將軍의 字는 景範이요 號는 松耘이시다 吏曹判書 弘文館 大提學을 지낸 諱 繼儉의 손자이시며 經筵參贊 諱 虎英의 둘째 아드님이시다 1569年 9月 15日 (宣祖 2年)에 태어나시어 1637年 1月13日 (仁祖 15年) 68歲를 일기로 戰死殉節하시었다. 將軍은 34歲(1603年)에 武科에 及第하여 宣敎郎巨山道 察訪과 縣令에 이르렀는데 清廉潔白하고 善政을 펼쳐 任地를 떠난 후 백성들이 善政碑까지 세웠다. 末年을 安山(現 始興市)의 鄉里에서 보내시다가 1636年(仁祖 14年) 丙子胡亂이 일어나 江華島마저 오랑캐에게 빼앗긴 후 敵의 氣勢가 강하여 계속 陸地로 향함에 義兵을 일으켜 安山 烽燧山城에 陳을 치고 큰아들인 宣傳官 升吉과 막내아들 頤吉과 더불어 나라를 위해 죽음을 맹세하고 義兵을 모집하니 곳곳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義兵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처음에는 安山 烽燧山城에 陳을 치고 敵을 防禦하였으나 火力과 戰鬪裝備가 貧弱한 반면 오랑캐의 戰勢는 더욱 強烈하여 安山을 攻擊해 음에 戰勢가 불리함으로 十餘里 떨어진 德物島(現 玉龜島)로 義兵을 이끌고 들어가 熾烈한 戰鬪를 벌인 끝에 많은 戰功을 세우고 敵軍의 목을 베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衆寡不敵으로 기력이 떨어지고 무기도 바닥나는 등 싸움의 形勢가 불리해지자 故鄉에 두고 온 家族들에게 遺言狀을 적어 화살에 매어 正往洞 배나루를 향하여 활시위를 당겼으며 배나루 山중턱에 화살이 날아와 닿았다. 이 때 將軍의 家族들은 戰爭터에 나간 三父子의 消息이 궁금하던 차에 화살이 날아왔는데 그 끝에 종이 묶음이 달려 있어 풀어보았더니 바로 將軍의 遺言狀이었다. 얼마 후 將軍 三父子가 德物島에서 殉節하자 화살이 떨어진 자리에 後孫들이 三父子의 葬禮를 치렀다. 이에 朝廷에서는 議政府 領議政 平原君(肅宗) 英祖때에 이르러 純忠仗義迪毅亨難一等功臣에 策勳하였으며 忠義謚號를 내려주었고 큰아들 升吉公은 左贊成 原陵君으로 頤吉公은 戶曹佐郎의 벼슬을 내렸다. 그 351년이 經過한 1988年 이곳 일대가 始華地區 土取場으로 編入되자 後孫들이 移葬을 하기 위하여 出役을 했는데 얼굴의 形態며 수염까지도 옛 모습 그대로의 미이라로 發見되어 모두들 놀랐다. 더욱이 當時 戰鬪에 입었던 속옷과 겉옷은 물론 官服까지도 조금도 變色되지 않은 채 었으며 靑나라 軍士의 칼로 옆구리 두 군데를 맞아 殉節 그 血痕이 官服에 스며 벌겍게 있었다. 始興市에서는 憂國忠節의 精神을 繼承하기 위하여 將軍이 두 아들과 함께 殉節하신 地域의 學校이름을 松耘初等學校와 松耘中學校라 命名하였으며 그 一帶를 松耘마을이라 制定하였다. 이에 後孫들이 先祖의 崇高한 護國精神을 기리기 위하여 始興 文化院과 始興市의 協助아래 文獻과 史料들을 參照하여 殉節하신 후 365年째 되는 해(2002年)에 精誠을 모아 愛國忠節의 精神으로 鄉土 故鄉을 지키신 先祖의 높고 깊은 德과 燦然한 功績을 後孫들에게 알리는 精神敎訓의 指標로 삼기 위하여 이곳 鄉里에 이 碑를 세운다. 墓는 始興市 正往洞 배나루 先塋에 있었으나 이곳 一帶가 始華地區 土取場에 編入되자 1990年경 본래의 위치에서 南西쪽으로 約300m 떨어진 先塋으로 移葬하였다.(2002년 건립)



□ 시흥의 무형문화재

구 분	내 용
명 칭	군자봉성황제
유 래	군자봉은 행정구역상 시흥시 군자동과 장현동·능곡동 사이에 위치한 높이 199m의 산으로서 옛 시흥군의 군자면, 현재의 군자동 등 주변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산에서 성황제를 지냈다는 것은 조선 전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이미 나와 있고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군자봉 성황제는 조선 초기에 국가의 공식 기록물에 존재가 언급될 정도로 이 지방에서는 널리 알려진 존재였으며, 최소한 500년 이상 된 전통 있는 성황제이다.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군자봉 성황제가 천년의 전통이 깃든 유서깊은 행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성황제는 단순히 무당에 의해 주도되는 곳이 아니다. 성황신은 한 고을을 수호하는 지역 수호신으로서 우리 조상들은 고려시대 이래 고을의 번영과 주민의 안녕을 성황신에게 빌어왔고, 그렇게 비는 절차가 바로 성황제였다. 따라서 우리 시흥시의 발전과 시흥시민의 안녕을 군자봉 성황제를 통해 성황신에 비는 것은 무속적인 것이 아니라 고려시대 이래 백성들의 소박한 기원풍습을 계승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며,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역사문화적 자산이다.
시 기	성황제 : 음력 10월 3일 유가행렬 : 이듬해 2월부터
주요 내용	1. 대왕기모시기 2. 산거리 : 군자봉성황제가 열리는 것을 부근도당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시민들에 복을 기원한다 3. 터벌림 : 무녀가 춤을 추는 가운데, 화랭이 둘이서 팽과리를 들고 터벌림 장단에 맞추어 흥을 돋운다.(터의 기운을 놀아준다) 4. 신장거리 : 신장님을 모셔다가 동서남북에 드는 액운을 막아주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를 뽑게 하여 길흉을 점보듯 알려준다 5. 대감거리 : 도당군웅대감님과 각 가중의 벼슬대감을 모셔다가 축원떡담을 해준다. 6. 성황님 모셔 들여 액운풀이 및 수비영산 : 모든 이에게 명과 복만 생기기를 기원해주며 굿을 끝낸다.



구 분	내 용
명 칭	시흥월미두레풍물놀이
유 래	시흥월미두레풍물놀이는 조선시대에는 '상직풍장'이라고 하여 경기지방은 물론 궁중에까지 널리 알려졌으며 시흥 지방에 남아있는 풍물 가운데 가장 짜임새 있는 편제와 예술성을 지닌 풍물놀이이다. 농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형성하여주고 마을의 화목을 촉진시켜주는 민속축제이다.
발굴 경위	시흥시 월미마을에서 이어져 내려오던 두레풍물놀이로서, 근대화와 산업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대략 1970년대 중반을 전후 전승이 중단된 월미두레풍물놀이를, 2003년 시흥문화원이 주관하여 문헌조사를 진행해 고증을 거치고 재현하였다.
특징	팽과리의 가락과 놀음이 발달되어 매우 현란하고 경쾌하며 범구쟁이들의 상모놀림이 어느 지역보다 단정하며 빠른 것이 특징이다.
놀이 시기	정월대보름 5월 파종 때와 6월 김매 때 7월 : 호미씻이, 백중놀이 8월 : 한가위 10월 : 동제를 지낼 때
구 성	이 놀이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농기와 습이라고 쓴 영기를 앞세우고 태평소, 상쇠, 징, 북, 장고, 벽고, 잡색, 무동과 마을 기 싸움까지 편제를 갖춘다.
진행과 정	인사굿을 시작으로 돌림범고, 당산, 칠채, 명석말이, 비조리놀림, 범고놀림 등을 거쳐 사통백이, 원형좌우치기, 네줄박이 좌우치기, 가세진, 무동놀음, 열두발 상모 등의 다양한 굿판과 이웃한 두 마을 농민의 기 싸움을 결들인다.



구 분	내 용
명 칭	포동 새우개 당제
유 래	포동은 전통시대로부터 광복 이후에 이르기까지 시흥 지역 어업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곳으로 포동의 새우개 당제의 제의(祭儀) 성격은 마을의 풍어(豐漁)와 안녕, 주민들의 건강을 비는 마을 제사이다. 포동 새우개 당제는 시흥의 대표적 어촌의 하나였던 포동의 역사와 전통민속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과거 염전건설로 인한 간척과 1959년의 포리호 사건 등이 겹쳐 어업과 농업이라는 이 마을 주민들의 주된 생업 기반이 쇠퇴·변화하면서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포동 새우개 당제는 그 제의과정의 일부로서 정월 당제에 앞서 포동의 동편마을과 서편마을에 장승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이 각색되어 '새우개 장승놀이'라는 이름으로 놀이화된 적이 있다.
시 기	제사는 일 년에 두 차례, 음력 정월 초와 7월 초에 지냈는데 당집에 모신 신령을 소당아가씨라 하고 제사 때마다 바느질 도구, 빗등 여성용품 등을 새로 장만하여 올리는데, 이 역시 다른 바닷가 마을에서 여성을 신(神)으로 모시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7월 당제는 우물 고사가 수반되어 농업에 있어서 한 해 추수에 감사하고 이듬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었다. 즉, 마을의 당제는 주민들의 생업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정월 당제의 경우 어업에, 7월 당제의 경우 농업에 보다 큰 비중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요 내용	일제강점기의 당제 관련 문서가 남아있다. 이들 자료는 1970년 후반에 일부 알려졌다가 2005년 당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알려졌다. 그중에서도 1923년 당제때 소요된 제수 및 비용을 순서대로 적은 「대정12년 음정월초삼일 당사시소용기(大正十二年陰正月初三日 당사시소용기)」는 조선시대 포동 당제의 원형을 짐작케 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1923년의 기록은 그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형식대로 적어 놓은 것이고, 그렇게 볼 경우 1923년의 제의순서는 사실상 조선시대의 것과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1930년 포리(浦里) 및 국동(局洞)의 당제 참여호의 숫자 및 호당 추렴 액수, 총수입 및 지출 비용, 도당제의 직임등을 기록한 「경오 정월초삼일도당신사시용하기(庚午正月初三日禱堂神祠時用下記)」, 1930년 당시의 포리(浦里) 및 국동(局洞)의 전 호수를 기록하여, 각 가호가 도당제에 어떠한 역할을 맡았는지를 알 수 있는 「소화오년경오음정월 일 포리호수씨명절목(昭和五年庚午陰正月 日浦里戶數氏名節目)」 등도 일제강점기 포동의 당제와 생활모습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또 1933년에 포리에서 혼상제(婚喪? : 혼인과 장례 때 상호 부조하기 위한 제모임)를 조직하면서 발의한 내용과 절목(節目) 및 계원 명단을 수록한 「입의론(立儀論)」도 마을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구 분	내 용
명 칭	시흥향토민요
발굴 경위 및 유래	선사시대로부터 오늘날의 역사시대까지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지닌 시흥시는 바다와 들,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고을로서 전통문화의 향기가 짙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전통민속과 향토민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는데 뜻있는 국악인의 노력으로 시흥의 바닷가노래와 들노래, 그리고 상여소리 등의 시흥시 향토민요가 보존되어 이어지고 있는바, 시흥문화원에서 『시흥의 소리』 전승사업을 교육하는 박일엽 국악인과 문학생들이 시흥의 향토민요를 재현한다. 시흥시에서만 불려지는 향토민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흥시의 옛포구인 새우개마을에서 부르던 바닷가 노래와 호조별 들녘의 일터에서 부르던 들노래. 그리고 장터와 사랑방에서 소리꾼들이 즐겨 부르던 민요들을 시흥시 향토민요로 묶어 전승하고 있다.
시흥시 향토 민요 발표회 및 공연 현황	2009년부터 시흥의 바닷가 노래를 국립민속박물관 및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공연을 하였으며, 들노래는 모내기과 김매기소리를 2010년도에 시흥시 민속극 생금닭 보러가세 공연에 1회 발표하였다. 또한 상여소리는 시흥시 여성회관에서 2회 발표하고, 국립민속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의 공연으로 국내외 관광객에서 시흥 상여소리를 알렸으며,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참여하여 민속상 수상을 받기도 하였다. - 2009.04.11. '만선의꿈, 서해바다' (바닷가노래) 국립민속박물관 공연 - 2009.11.19. '만선의꿈, 서해바다' (바닷가노래) 시흥시 여성회관 공연 - 2009.12.04 '시흥시 구전민요 발표회' (상여소리,범벅타령) 시흥 여성회관 - 2010.09.07 '시흥 상여소리' 발표회 시흥시 여성회관 - 2010.11.19 '생금닭 보러가세' (시흥들노래) , 시흥시 여성회관 공연 - 2010.11.25 '만선의꿈 시흥바다' (바닷가노래), 청소년 수련관 공연 - 2011.05.15 '시흥 상여소리' 국립민속박물관 공연 - 2011.08.13 시흥 민속극 '만선의꿈 시흥바다' (바닷가노래) 공연 - 2011.10.01 경기도 민속예술제 '시흥 상여소리' 출전, 민속상 수상 - 2012.6.4 시흥 들노래와 서도소리 공연 - 2012.8.11 연성문화제, 시흥시 향토민요 다섯 마당 공연 - 2012.7.26 연성문화제, 시흥시 향토민요 발표 공연



독조도獨釣圖

강희맹(姜希孟, 1424 ~ 1483) 작품.
가로 86cm, 세로 132cm의 족자 비
단 담채. 오구라 타케노스케가 수
탈, 일본 오구라 문화재단을 거쳐
현재는 도쿄박물관에 소장.

2013 제1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시흥의 정체성과 시흥문화원의 역할

 시흥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75-1번지(조은프라자 4층)

전화 031_317_0827 / 팩스 031_317_0828 / 홈페이지 www.shculture.or.kr

*본 자료집은 [시흥시 보조금] 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문화  성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10월은 문화의 달